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09호 【루계 제24522호】 주체103(2014)년 4월 19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 정 은 동 지**

친애하는 동지

나는 당신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국방 및 안전위원회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축원의 인사를 보냅니다.

당신께서 이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직책에 또다시 높이 추대되신것은 당신에 대한 조선당과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의 표시로 됩니다.

나는 당신의 현명한 령도밑에 형제적조선인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제기한 목표실현과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당신의 숭고한 위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라오스와 조선 두 나라 당과 국가와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가 끊임없이 더욱더 공고발전되기를 축원합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쭘 말 리 싸 이 냐 쏜**

2014년 4월 11일 비엔티안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선물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선물을 보내시였다.

지난해 10월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포성을 높이 울리고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의 간곡한 당부대로 공장에 훌륭한 합숙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시며 건설부지를 몸소 정해주시고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일일이 풀어주신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희한한 합숙에서 생활하게 될 로동자들을 위해 문화용품들을 보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18일에 진행되였다.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선물전달사를 김수길책임비서가 하였다.

그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계급의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사랑을 거듭 베풀어주고계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에는 우리 로동계급을 강성국가건설의 주력부대로 내세워주시며 천만금도 아낌없이 돌려주시는 한량없는 믿음이 깃들어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공장의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방직설비들의 고속도화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질좋은 옷감과 각종 천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모임에서는 합숙관리과장 림수혁, 조방공 우숙영, 직포공 김은정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숭고한 사랑을 이으시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합숙생들을 비롯한 공장로동계급에게 안겨주시는 하늘같은 은정에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령도자도 많지만 평범한 로동자들을 위해 현대적인 합숙을 지어주고 선물까지 보내준 위인은 없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야말로 우리 인민의 만복을 꽃피워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당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웅장하게 일떠서는 합숙의 첫 주인이라는 남다른 긍지와 행복을 가슴에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은덕에 더 높은 생산실적으로 보답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공장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전초기지로 내세워주시고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새기고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감사전문

주체혁명위업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재일동포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2돐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성대히 경축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민족적환희로 들끓고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무한한 감격속에 받아안았습니다.

총련 제23차 전체대회를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에로의 비약의 토대로 하기 위한 70일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때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2억780만￥에 달하는 거액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우리의 성스러운 애족애국운동을 크게 고무해주고있습니다.

1957년 4월 8일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은 그날로부터 57돐을 헤아리는 올해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60차에 걸쳐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총액은 일본돈으로 모두 473억 3 115만 390￥의 막대한 금액에 달합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열화같은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는 감격속에 하해같은 사랑과 은정을 또다시 받아안은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 조국인민들과 심장의 박동과 숨결을 같이하여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애국유산인 총련조직과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기어이 고수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어떤 정세가 조성되여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과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며 총련조직을 원수님의 해외교포조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총련중앙두리에 일군들과 동포들모두가 굳게 뭉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의 활로를 민족교육사업에서부터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민족교육사업을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민족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무한히 충직한 참다운 애국자, 애족애국의 대를 이어나갈 유능한 민족인재로 더 잘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일본당국이 감행하는 전대미문의 민족교육탄압말살책동을 철저히 반대배격하며 애국선대들이 피로써 지켜온 민족교육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 전조직과 동포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광범한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민족교육지원사업을 전기관적으로, 전동포적으로 활발히 벌려 더 많은 동포자녀들을 우리 학교에 받아들임으로써 학생대렬을 늘이고 학교운영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더없이 귀중한 어머니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옹호하며 삼천리조국강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는데 특색있게 기여해나가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모시고 처음으로 가지는 력사적인 총련 제23차 전체대회를 충정의 대회, 일심단결의 대회, 계승과 혁신의 대회로 빛나게 장식하고 대회를 계기로 애족애국운동을 활력있게 벌려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배려에 기어이 보답해나가겠습니다.

통일강성국가건설과 반미전면대결전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과 안녕은 우리모두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충정과 흠모의 한마음을 담아 주체혁명위업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재일동포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체103(2014)년 4월 18일 일본 도꾜

# 천만군민의 애국의 열정과 지혜로 강성국가건설을 본때있게 다그치자

## 고산과수농장 쇠그물울타리공장건설 힘있게 추진

###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쇠그물울타리공장이 고산과수농장에 일떠선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울 결사의 각오를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쇠그물울타리공장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머지않아 년산 수십만㎡능력의 공장이 완공되여 쇠그물울타리가 팡팡 생산되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뜻대로 고산과수농장이 현대적인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서의 면모를 갖출수 있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고산과수농장에서 경영관리를 잘하자면 쇠그물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몸소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쇠그물울타리공장을 건설하여 과수발변두리와 도로주변에 쇠그물울타리를 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지난해 6월,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공장을 건설하고 자체로 쇠그물울타리를 생산하여 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또한 최근에 또다시 공장건설준비정형을 료해하시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였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섬멸전, 립체전을 벌려 공장건설을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단숨에 해제끼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참모장 조용하동무를 비롯한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현실적조건에 맞게 건설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통이 큰 작전으로 말겨진 전투과제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낄수 있는 혁신적인 방도들을 찾았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먼저 벽체쌓기에 필요한 블로크생산을 다그쳐 끝낼 전투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웠다. 그리고 각 도려단들에서 대대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모든 돌격대원들이 일별전투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블로크생산이 끝나는데 맞게 마감자재들과 필요한 설비보장사업도 적극 따라세워 건축공사가 끝나는 즉시 쇠그물울타리생산을 시작할수 있는 담보도 마련해놓았다.

이런 성과에 기초하여 대상건설이 시작부터 힘있게 벌어졌다.

일군들은 현장협의회를 자주 조직하고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공으로부터 운영준비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론한 후 각 단위들에 전투과제를 정확히 주었다.

모든 단위의 정치일군들은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일대 사상전을 벌림으로써 건설장에 결사관철의 기상, 전투적기백과 혁명적랑만이 차넘치도록 하였다.

기초굴착공사를 위한 지대정리가 힘있게 벌어졌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각 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지성을 다 바쳐 주변에 울창하게 자라고있는 나무들에 자그마한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말겨진 지대정리과제를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기초파기전투장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였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자력갱생의 정신과 견인불발의 의지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하게 뚫고나가며 압축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암반까기전투과제를 매일 150%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우리 혁명의 년대들마다 천리마의 기상, 속도전의 불바람으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안아온 전세대들의 영웅적투쟁정신과 혁명적기풍으로 드센 공격전을 벌려온 황해남도와 함경북도려단들에서도 매일 수백㎥의 돌과 토량을 처리하며 기초파기공사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특히 황해북도려단에서는 일군들이 대오의 기수가 되여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면서 혼석다지기를 비롯한 기초공사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였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성과가 높아지는데 맞게 시공을 전문화하여 건설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모든 일군들이 시공에서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적은 로력과 자재를 가지고 건설을 더 빨리, 더 질적으로 할수 있는 혁신적인 안들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고있다.

본사기자 정영철

## 올해 첫 콩크리트치기 진행, 성과 확대

###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떨쳐나선 청년돌격대원들과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보름 앞당겨 올해의 첫 언제콩크리트치기에 진입하여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에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수준의 훌륭한 건축물들과 인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건설을 많이 하여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올해에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을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과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정초부터 높이 세운 건설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첫 언제콩크리트치기를 위한 준비사업을 착실히 진행하여왔다.

현장련합지휘부의 일군들은 언제콩크리트치기에 필요한 골재보장을 쑥 앞세우는 한편 세멘트와 강재를 제때에 마련하기 위한 대책들을 실속있게 세웠다.

골재보장을 맡은 청년돌격대원들은 북방의 엄혹한 날씨와 부족한것이 많은 조건에서도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1호발전소건설에 필요한 10여만㎥의 골재를 생산 및 운반하였으며 전망성이 좋은 골재장들을 더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언제콩크리트치기에 필요한 세멘트와 강재를 현장에 도착시키기 위한 수송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언제콩크리트치기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기술준비사업을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이들은 직장들사이의 공정별련계를 강화하고 설비들에 대한 보수 및 정비사업을 제때에 진행하는 한편 부분별시운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따라세웠다.

하여 선별혼합직장과 중기계직장에서 모든 설비들에 대한 정비보수를 완전히 끝내였으며 언제타입직장에서도 콩크리트치기에 필요한 철근가공과 휘틀조립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모든 준비를 빈틈없이 갖춘데 기초하여 1호발전소공사장에서 예정기일보다 앞당겨 지난 4월 12일 올해 첫 언제콩크리트치기에 진입하였다. 각종 설비들의 힘찬 동음과 함께 첫 혼합물이 대형기중기에 실려 언제로 오르고 타입공들의 번개같은 일솜씨에 의하여 이날 예정되였던 콩크리트치기목표는 성과적으로 점령되였다. 이들은 불꽃튀는 건설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세개의 주요 블로크에 대한 콩크리트치기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하였으며 충천한 기세로 타입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지금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과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뜻깊은 올해에 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 열의를 안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며 공사장마다에서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 경공업전선을 과학기술로 적극 추동

### 국가과학원 경공업과학분원에서

국가과학원 경공업과학분원에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분원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과학자들속에 깊이 심어주어 그들이 경공업과학기술을 주도해나가는 핵심이 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는데 이바지하도록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고있다.

신심과 락관에 넘쳐 올해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선 이곳 과학자들은 높이 세운 과학연구목표들을 조항별로 따져가며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있다.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우리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분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식료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과학자들은 된장, 간장을 비롯한 기초식품의 규격화, 표준화를 실현하고 종균생산공급체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완성하였으며 련관부문의 과학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여러가지 음료들의 생산공정확립을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곡물가공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먹는 문제에서 기본인 주식물의 가공과 식품들의 생산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심도있게 해나가고있다. 강냉이를 비롯한 여러 곡물들을 사람들의 구미에 맞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가공하며 품종을 다양하게 확대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잘하고있다.

식료연구소의 과학자들도 콩단백제조기술도입, 큰단백풀을 식료품첨가제로 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 감자음료의 공업적생산 등 가치있는 과학연구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으며 생산단위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도와주기 위한 사업도 놓치지 않고있다.

분원의 과학자들은 방직공업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방직연구소에서는 비날론을 비롯한 여러가지 섬유들의 질제고와 비날론천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방직설비고속화연구소에서는 방직공업에 쓰이는 여러 종류의 설비들을 대담하게 설계제작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분원의 과학자들은 우리의 원료와 자재로 우리의 기호에 맞게 경공업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향료 및 화장품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당과류를 비롯한 식용제품에 쓰이는 여러가지 향료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좋은 성과들을 이룩해나가고있다.

또한 천연물에 기초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다기능성화장품제조와 향료 및 화장품첨가제개발사업에서 큰 전진을 가져오고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국가과학원 경공업과학분원의 전체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투쟁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을것이다.

본사기자 김경철

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애국의 마음안고 유색금속생산을 다그치고있다.
— 단천제련소에서 —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살자

##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의 발자취를 더듬어

백두산바람이 터졌다.

백두산에서 혁명전통학습의 거센 바람이 일었다.

설레이는 천고의 밀림과 휘몰아치는 칼바람속을 헤치고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행군을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전적지답사는 우리 혁명을 완수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들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하고 그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는데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 백두산바람을 맞아봐야 혁명을 안다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대오가 답사행군을 진행한 시기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위험천만한 군사연습을 벌려놓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더없이 긴장하고 첨예한 때였다.

전쟁열에 들뜬 적들이 전선으로, 열점지역으로 떼지어 몰려드는데 최전연과 하늘땅, 바다를 지켜섰던 인민군련합부대의 지휘관들은 백설을 장엄히 휘날리는 백두산으로, 백두산으로 향하였다.

백두의 풀물오른 군복을 입고 백두산권총을 찬 그들의 배낭속에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노래수첩, 하모니카들이 들어있었다.

그때의 심정을 한 련합부대지휘관은 다음과 같이 터놓았다.

《서남전선 최대열점지역에서 멸적의 포신을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답사행군과 관련한 명령을 전달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조성된 시각에 우리 인민군지휘관들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불러주실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대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후승리에 대한 만만한 확신과 드팀없는 신념, 백두산악과 같은 담력과 배짱이 차넘치는 대용단이였습니다.

답사행군에 참가하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벌써 싸움에서 승리하였구나 하는 생각에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였습니다.

최전연지휘성원들까지 백두산으로 불러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기에 전연초소들은 철벽이라고 생각하니 심장이 뜨거워오름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답사행군을 통하여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원쑤격멸의 칼날을 억세게 벼림으로써 날강도미제에게 백두산총대의 불벼락맛, 백두의 붉은칼맛을 단단히 보여주겠다는 억척의 결의가 불타올랐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만이 아닌 답사행군대원들모두의 심정이였다.

싸움의 승과 패는 싸움전에 결정된다. 적을 정신적으로 압도하면 승리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이다.

우리 민족과 함께 유구한 세월의 만고풍상을 겪어왔으며 력사의 흐름과 더불어 그 상징적의미도 풍부해진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을 한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있지만 이번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이 가지는 의의는 비상히 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 받들고 사상공세의 위력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겨가는 오늘 인민군대가 일으킨 백두산바람,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한 혁명전통학습바람은 온 나라, 온 사회에 파급되여 시간이 흐를수록 그 력사적의의는 증폭되고있다.

천만대적도 발아래에 굽어보는 강철의 선군령장 김정은동지의 전사, 전우들인 인민군지휘성원들은 강대한 정신력에 더욱더 백두의 칼날을 세우기 위하여 백두의 행군길에 나선것이였다.

그들의 군모에 빛나는 붉은 별을 스치며 백두산바람이 불어왔다.

백두의 바람결에 행군대오앞장의 붉은 기폭은 힘차게 나붓꼈고 우리 혁명의 만단사연이 아로새겨진 력사의 지점들이 혁명군대의 새 세대 지휘관들을 맞아주었다.

보천보, 보서리, 중흥등판, 포태, 백두산밀영, 사자봉밀영, 리명수, 청봉숙영지와 건창숙영지, 베개봉숙영지, 삼지연과 무포, 대홍단…

그것은 그대로 민족수난의 어제로부터 강성번영의 찬란한 오늘에 이르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령도사였다. 그것은 곧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이 안고있는 진리의 힘이 백두광야에 깊고도 억세게 뿌리를 내린 우리 혁명전통의 축도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오늘날 백두산은 우리 혁명의 2세, 3세, 4세들에게 1세들이 지녔던 백두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게 하는 학교로 되고있다. 광활한 백두대지에는 대로천혁명박물관이 형성되였다.》**

답사행군은 항일의 준엄한 정세속에서 백석탄과 마당거우밀영들에서 진행된것과 같은 군정학습이였다.

전쟁의 구름이 떠도는 시각에 진행된 군정학습이여서 답사행군대원들의 느낌과 체험은 강렬하였고 배움의 폭과 심도도 비상하였다.

군정학습의 목적은 필승의 신념,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헌신성과 희생성을 내용으로 하는 백두의 혁명정신의 체득!

군정학습의 교과서는 백두광야에 굽이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력사!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관리소 군중교양과장 최련희동무는 말하였다.

《우리 밀영을 한해에도 수백개 답사단체에 수만명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찾고있으나 이번 인민군지휘성원답사단체처럼 그렇게 질서정연하고 절도있을뿐아니라 사적내용을 파고드는 단체는 처음봅니다. 그들은 큰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들이지만 강의에 주의를 집중하였으며 사적내용을 더 깊이 알려고 우리 강사들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하고 심지어 지형지물에 따르는 매 밀영배치정형과 그 유리성까지 세세히 알아보고 수첩에 적어넣으면서 진지하게 배우려 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였다. 답사행군대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이 체현된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들마다에서 회상기발표모임, 우등불모임, 문답식학습경연, 답사소감발표모임을 하였다. 아직 눈이 쌓여있는 숲속에 항일유격대식으로 천막을 치고 숙영하면서 군용밥통에 밥도 지었으며 원쑤격멸의 총성이 높이 울렸던 대홍단전투장소에서 사격경기도 펼쳤다. 찬바람부는 숙영지에 지펴올렸던 우등불가에서 노래와 춤판을 펼치고 백두의 서정을 즉흥시에 담기도 하였다.

하루의 답사행군이 끝나 백두의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하였지만 그들은 잠들지 못하였다.

백두광야에 만고의 항쟁사를 엮으신 항일의 전설적영웅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혁명자욱들이 어려왔고 항일전구들에서 창조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명맥으로, 피줄기로 우리 혁명의 년대들을 줄기차게 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생동한 화폭으로 떠올랐기때문이였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사는 망국의 치욕을 안고 모래알처럼 흩어졌던 동포형제자매들에게 사상을 주고 기치를 주고 무장을 주어 백두산으로 이끌어오는 과정이였고 백두산에서 일제를 쳐이긴 과정이였다.

백두산을 떠나 항일혁명의 력사적단계를 론할수 없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의 전환적국면을 백두산에서 안아오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하달과 집결된 부대들의 전투임무확정도 백두산지구의 간백산밀영에 나오시여 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두달후인 8월 15일 삼천리강산에 해방의 만세소리 높이 울려퍼졌다.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4살 어리신 나이에 몸소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길을 개척하시여 혁명전적지답사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을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언제나 백두의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사업에 큰 관심을 돌리시였고 백두산지구를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꾸리는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 이야기 어찌 그뿐이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성과적으로 결속할 원대한 구상도 백두의 눈보라강행군길에서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9(2000)년 3월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구상하신 곳도 백두산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나는 그 어떤 큰 구상을 하거나 작전을 할 때에는 늘 백두산에 가군 합니다. 눈보라가 날리는 백두산정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피어린 항일대전을 돌이켜보고 온 나라에 떠받들려있는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을 보느라면 통이 큰 작전과 구상이 떠오르고 그에 대한 신심과 용기도 생기군 합니다.》**

그때로부터 몇달후 북과 남사이에 최고위급회담이 있었고 우리 민족끼리를 리념으로 하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였다.

참으로 답사행군과정을 통하여 련합부대지휘관들의 마음속에 백두산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산, 김정일동지의 산으로 더욱 높이 솟아올랐다.

하나의 군정대학을 마치는 과정에 그들은 핵폭탄보다 더 위력한 사상정신적재부를 얻었고 오늘의 빨찌산김대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엄한 시기에 군정학습을 조직해주신 의도를 뼈에 새기게 되였다.

그것은 시대와 력사의 뜻이고 의지였다.

위대한 백두의 산아인 혁명군대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혁명의 뿌리가 무엇이고 이 나라 강성번영의 초석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 정세가 준엄할수록 백두의 후손들은 백두산을 찾아 우리 수령님의 숨결, 우리 장군님의 체취를 받아안아야 하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처럼 싸워 승리하여야 한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혁명군대의 지휘관들은 언제나 사상사업, 특히 혁명전통교양의 의의와 중요성을 재인식, 재확인하여 위대한 전통의 힘으로 분발하며 조선혁명의 넋이고 생명인 백두의 혁명정신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는데서 홰불이 되고 나팔이 되여야 한다. …

오늘의 빨찌산 김대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답사행군을 마친 미더운 전우들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친히 현지에 오시였다.

절세위인의 백두산행이 또다시 력사에 새겨지게 된것이다.

씨원한 백두산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얼마나 경탄의 한마음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난해 11월 삼지연군현지지도의 력사적의의를 되새겨보았던가.

백두의 령장들이 일으키신 백두산바람이 불면 기필코 력사적사변들이 있었으며 우리 조국과 민족은 그때마다 승리와 영광만을 맞이하였었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서 오늘의 빨찌산대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답사행군대원들은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결의대회를 가지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전군에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조직하였다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만세의 환호성이 백두의 하늘가에 울려퍼졌다.

삼천리지맥을 한품에 걷어안고 세기의 백발을 휘날리며 거연히 솟은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격랑을 일으켜 바람을 터쳤다.

백두산바람은 련련히 뻗은 산발들을 타고 온 누리에 불어갔다.

### 항일유격대식군중정치사업의 위력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는 그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한 백두산의 호랑이들로 키웠을뿐아니라 조선혁명의 발원지이고 전민항쟁의 보루였던 량강도의 인민들을 항일유격대식으로 교양하고 사상정신적으로 발동시켰다.

답사행군대가 지나간 곳들마다에 백두산기슭의 인민들이 두고두고 전해갈 하많은 이야기들이 생겨났다.

대홍단혁명전적지관리소 관리원 리길남동무는 신사동혁명전적지에 온 인민군답사단체가 간밤에 전적지주변 봇나무숲속에 천막을 치고 숙영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숙영자리를 정돈할 생각으로 그 자리를 찾았다. 그런데 어디가 불무지자리이고 천막자리인지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숲속을 말끔히 정리해놓아 할 일이 없게 되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일제가 조선인민혁명군이 숙영하고 간 자리만 보고도 부들부들 떨었다고 했는데 정말 인민군지휘성원들의 생활기풍이 항일유격대의 생활기풍 그대로라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 더우기 그들이 쓰고남은 수십㎥의 땔나무를 모아놓고 그우에 써놓은 다음의 글발을 보았을 때 우리 군대에 대한 감동과 존경심은 더욱 컸다.

《력사의 땅 대홍단에서 숙영하고 떠납니다.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살며 투쟁하겠습니다.》

삼지연군의 인민들도 모아놓은 땔나무무지우에 놓여있는 편지를 읽을수 있었다.

《우리들은 이곳에서 하루밤 숙영하면서 혁명전적지의 나무 한그루, 풀한포기도 그처럼 귀중히 여기는 삼지연인민들의 정신세계에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지 않은 량이지만 우리가 쓰고남은 나무들을 여기에 모아놓고 가니 보태쓰길 바랍니다.》

하지만 인민들은 답사행군대가 처음에 정하였던 야외숙영지가 조건은 유리하였으나 바람이 세고 수림속의 눈이 퍼그나 녹아 화재를 발생시킬수 있는 요소가 있으므로 30여리를 더 행군하여 혁명전적지구역에서 떨어진 곳에 숙영지를 꾸렸었다는 사실까지는 알수 없었다.

삼지연군 리명수려관에서 일하는 김분월녀성은 건창숙영지주변에서 인민군대가 눈속에 천막을 치고 숙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담근 고추장과 삼지연의 특산인 청취와 곰취절임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찾아가 마음뿐이니 성의를 받아달라고 하였다.

그를 반갑게 맞아준 답사행군대원들은 정말 고맙다고, 하지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들에게 백두산의 공기와 물만 마시고 인민들에게는 사소한 부담이나 폐를 끼쳐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씀하시였다고 하면서 끝끝내 사양하였다. 뿐만아니라 자신들의 배낭에서 행군용량식을 덜어 싸주고 차까지 내여 집에 태워다주었을 때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있는 우리 인민군대의 풍모앞에 머리가 숙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관리소 로동자 장명삼동무는 인민군답사단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에 나간 아들생각이 나서 정성껏 콩국을 만들어가지고 답사행군대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들은 야외에서 언 주먹밥을 먹으면서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추운 날씨에 뜨끈한 콩국으로 속을 좀 덥히라고 권하였으나 자기들은 백두산의 물과 공기만 마셔도 배가 부르다고 하면서 이제 적들을 격멸하고 백두산에 다시 오면 오늘몫까지 봉창하여 들겠다고 하는것이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끝에 명삼동무가 말없이 두고간 콩국을 군인들은 그대로 마을유치원아이들에게 보내주었다.

백두산의 풀뿌리와 생눈을 삼킬지언정 인민들에게는 자그마한 페도 끼치지 않았던 항일유격대원들이 련상되여 그는 눈굽이 뜨거웠다.

참으로 인민군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답사행군과정은 군정학습과정인 동시에 백두산지구의 인민들을 각성시키는 혁명전통교양과정이였다. 우리 조국의 참모습인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더욱 떨쳐가는데서도 인민군대가 주동이고 선구자라는것을 남김없이 보여준 나날이였다.

답사행군을 끝마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은 지난 4월 1일 오후부터 2일 오전까지 백두산기슭의 인민들속에 일제히 들어가 군중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답사행군대를 맞이한 마을들은 항일전의 그 나날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항일유격대를 맞이한 근거지 마을처럼 환희로 들끓었고 군민대단결의 아름다운 화폭들이 펼쳐졌다.

원수님 보내주신 우리 군대가 왔다고 집집의 문을 두드리며 기쁨에 넘쳐 동네방네 뛰여다니는 아이들, 신발을 채 신지 못하고 달려나온 로인들, 농쟁기를 든채로 그들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돌아가는 농장원들…

연평도를 불바다로 만들어 천만군민의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었을뿐아니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용맹떨치고 강성국가건설에서도 위훈떨친 우리 군대의 지휘관들은 마을들에 들어서며 《오늘의 빨찌산대장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시여 우리들이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인민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었다. 그리고 유격구인민들을 찾아온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집집에 들어서자마자 웃옷을 벗어던지고 나무를 팬다, 터밭관리를 한다, 물을 길어준다 하면서 바삐 돌아갔다.

먼길을 걸어 피곤할텐데 어서 쉬라는 집주인들의 거듭되는 권고도 너그럽게 밀막은 그들, 망질도 같이 하면서 우리를 어째보겠다고 날뛰는 적들의 책동을 알려주어 저도모르게 주먹이 불끈거리게 할 때에도, 우리가 잘살자면 뭐니뭐니해도 농사를 잘 지어 식량이 풍족해야 한다면서 농사군의 본분을 되새겨줄 때에도 그들의 모습은 친아버지, 맏형의 모습으로 안겨들었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 가서는 애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숙제검열도 해주었고 일손이 바쁜 집에 가서는 눈발구로 거름더미도 함께 나르면서 농민들이 알고싶어하는것들을 귀에 쏙쏙 들어오게 통속적으로 이야기해주어 우리 당정책들을 제 집안일처럼 환히 알게 해주었다. 제대군인가정에 가서는 동무들이 생산하는 감자가 원쑤들을 족치는 무기가 되고 인민의 행복도 꽃피운다는것을 잊지 말고 유서깊은 백두대지에서 감자만풍년의 만세소리가 울려나오게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한 인민군지휘관들이였다.

어느 집에서나 시간이 흐를수록 웃음소리 높아갔고 뜻이 통하고 정이 깊어져 총각, 처녀때의 사랑이야기는 물론 가정비밀까지도 터놓게 되였다.

인민군지휘성원들이 흰쌀과 부식물, 신발과 내의류, 약품들이 들어있는 배낭과 지함들을 풀어놓으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여 마련한것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이의 사랑이 너무도 고마와 뜨거운 눈물을 쏟고야만 량강땅인민들이였다.

농장들에서 항일대전의 지양개등판을 방불케 하는 군민련환모임이 펼쳐져 백두산기슭 인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혜산시 신장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진행된 군민련환모임에 참가한 1작업반 1분조 선동원은 큰 별을 단 장령의 힘있는 선동연설은 우리모두의 심장을 순간에 틀어잡았다, 그의 격동적인 선동을 들으면서 지난 기간 나는 왜 인민군지휘성원동지처럼 저렇게 선동사업을 하지 못하였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하면서 인민군대의 선동사업방법을 따라배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줄 아는 선동원이 되겠다고 결의하였다. 나이지숙한 온실분조장녀성은 오늘의 군민련환모임은 군대와 인민이 적들을 한바탕 족치고 승리한 기분으로 진행하는 경축모임같았다, 군대들이 씩씩한 군가만 잘 부르는줄 알았는데 흥겨운 노래가락에 맞추어 춤 또한 얼마나 잘 추는지 저절로 흥이 나 너도나도 춤판에 뛰여들었다, 정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오늘의 군민련환모임을 두고두고 잊을수 없다, 오늘의 이 기세로 올해농사를 잘 지어 기어이 대풍을 마련하는데 한몫하겠다고 격정을 터뜨렸다.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이 진행한 항일유격대식군중정치사업은 농장원들의 정신력에 백두의 칼날을 세워주고 이 세상에서 제일인 우리 군대처럼 일한다면 경제강국도 웃으며 건설하겠구나 하는 배심을 안겨주었을뿐만아니라 일군들에게도 큰 작용을 하였다.

삼지연군의 당책임일군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인민들속에 들어가 진행한 군중정치사업을 통하여 받은 감흥이 대단히 큽니다.

백두산기슭에서 산다고 하여 백두의 혁명정신이 저절로 체득되는것도 아니며 항일의 혁명전통이 말과 글로 계승되는것은 더우기 아닙니다.

백두산 제일 가까이에서 당사업을 하면서도 줴기밥으로 끼니를 에우면서 생눈을 깔고 자보지도 못하였으며 정치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시키는 공세적인 사상사업으로 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인민군대지휘성원들을 파견하시여 현시기 벌려야 할 혁명적사상공세의 내용과 방법까지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대로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해나가겠습니다.》

혜산시의 책임일군은 짧은 하루동안에 군중을 교양하고 감화시키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의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군중정치사업, 농장원들과 함께 땀흘려 일하면서 마음과 정을 주고받고 배낭을 메고 집집에 찾아들어가 군중과 어울리며 당정책을 심어주는 모습은 우리 사회일군들을 매혹시키고 탄복시켰으며 정신을 번쩍 차리게 했다고 하였다.

백암군의 당선전일군은 제강을 들고다니는 인민군지휘성원은 한명도 없었다고 하면서 군중앞에서 연설을 하여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를 누구나 다 알아들을수 있게 통속적으로 하여 군중의 반영이 정말 컸다고, 앞으로 그들이 배워준 항일유격대식정치사업방법대로 인민들의 심금을 울리는 실속있는 사상사업을 하겠다고 결의다졌다.

참으로 이번에 백두산지구를 답사행군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은 항일의 전설적영웅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보천보와 삼지연, 대홍단일대에 진군하였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같았다.

그들이 안고온 백두산바람은 온 량강도를 끓어번지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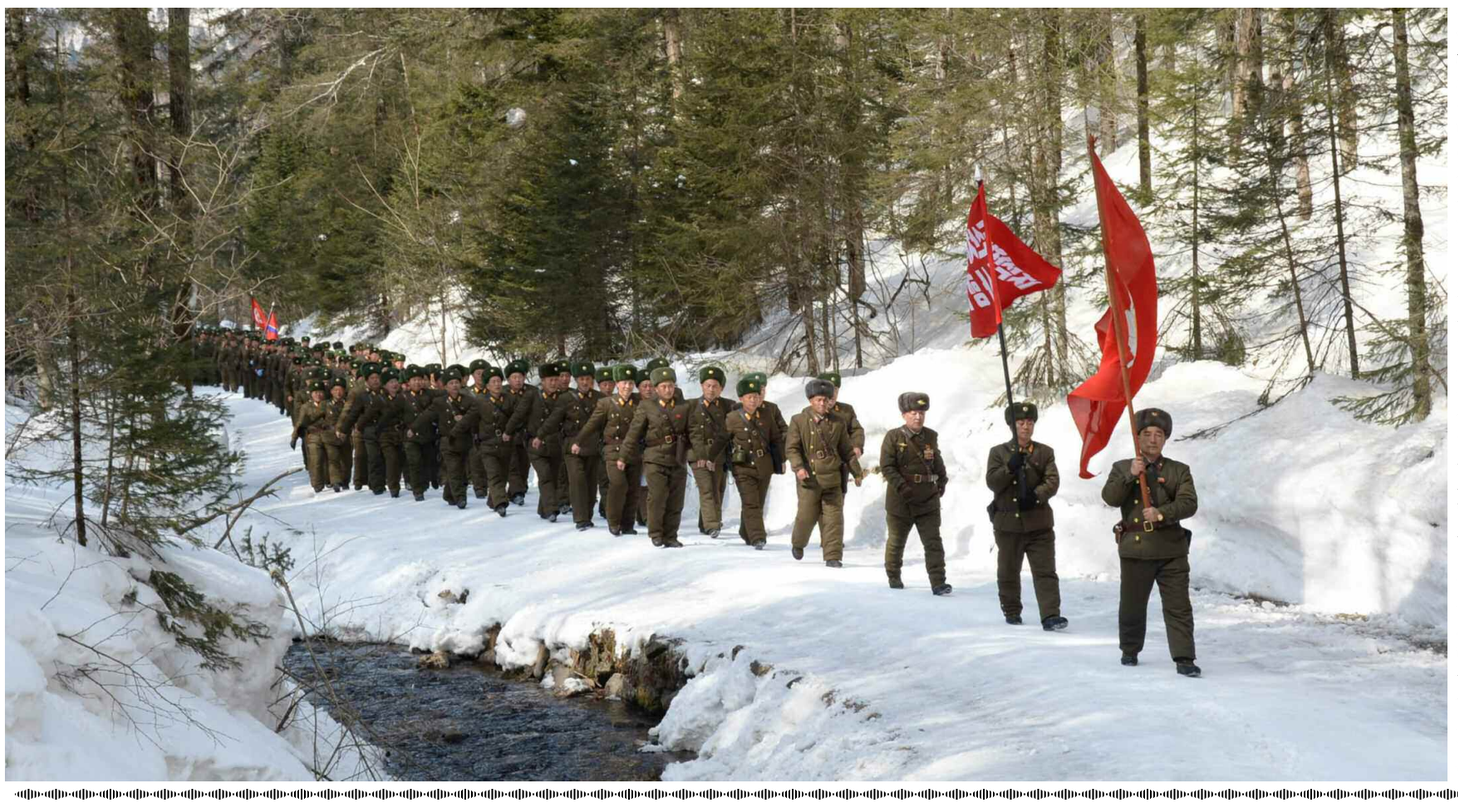
혁명의 성지,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력사의 땅에서 사는 인민들에게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어주고 백두의 칼날을 세워주어 백두산을 지켜가는 신념의 강자들이 되게 하고 바로 이곳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퍼지게 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뜻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지휘성원들의 답사행군에 이어 이름난 모란봉악단의 음악포성, 사상포성까지 이곳에서 울려주시여 백두산기슭이 혁명열과 투쟁열로 부글부글 끓도록 해주시였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데 대한 구호를 제시하시였을뿐만아니라 혁명적사상공세의 생동한 본보기까지 직접 마련하시여 전당, 전군, 전국을 들끓게 하시는 위대한 스승이시다.

백두산바람이 불고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바람, 백두산바람이 온 나라에 불어가고있다.

본사기자 박일민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 짐바브웨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하라레

짐바브웨공화국 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 각하**

나는 짐바브웨독립 34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안정을 수호하고 민족적단합과 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4월 18일 평 양

## 안도의 수림에 울려퍼진 환호성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자랑찬 모습에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80여년전 안도의 수림에 펼쳐졌던 잊지 못할 화폭을 그려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긍지높고 무적필승의 위용을 떨치는 백두산혁명강군이야말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남기신 최대의 애국유산이며 이런 고귀한 유산을 물려받은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행운이며 자랑입니다.》**

주체21(1932)년 4월 25일 소사하와 흥륭촌일대의 인민들은 저저마다 키돋움을 하며 소문으로만 들어온 위대한 수령님을 뵈오려고 야단법석이였다.

《아니, 김대장이 저렇게 젊으셨소? 아직 20대 초반이겠구려. …》

《헌데 령감은 수염이 허옇게 난 장수라고 하질 않았소?》

《글쎄, 난 돌아가는 말을 듣고…》

그무렵 주변인민들속에서는 김대장은 키가 구척이고 수염이 한발인데다가 갑옷같은것을 입고 백마를 타셨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런데 막상 뵈옵고보니 유격대원들과 꼭같은 군복을 입고 계시는 청년장군이 아니신가.

무장대오를 꾸리던 잊을수 없는 나날들을 돌이켜보시듯 군복입은 끝끝한 대원들을 한동안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우리는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려 강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게 된다는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울려퍼지자 전체 대원들은 만세의 환호를 올렸고 인민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답례를 보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두다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의 붉은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자고 호소하시였다.

총대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실 억척의 의지를 안으시고 강도 일제와의 선전포고를 하신 20대의 청년장군 우리 수령님을 우러러 전체 대원들은 총을 높이 추켜들며 열렬히 호응하였다.

인민들도 너무 기뻐 서로 얼싸안고 돌아갔다.

이런 날이 오리라고 꿈엔들 생각해보았던가.

진정한 인민의 군대를 갈망해온 우리 민족이 자기 군대를 가지게 된것만도 감격적이였지만 그처럼 젊으신 청년장군을 조선군대의 령수로 모시였다는 격정으로 하여 인민의 기쁨은 그리도 크나큰것이였다.

안도의 수림에 울려퍼진 만세의 환호성,

그것은 우리 민족이 그처럼 념원하던 혁명무력을 창건해주신 민족의 영웅, 희세의 청년장군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이 나라 인민들의 감사의 분출이였다.

본사기자 리금분

# 사회주의수호전의 병기창에 비약의 기상 나래친다

##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 가스화공정조업이래 최고생산실적 기록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주체비료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이곳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무연탄가스화공정이 조업하여 지금까지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 초기의 2.2배이상에 이르렀다고 한다.

특히 농업전선을 주타격방향으로 정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남흥로동계급의 힘찬 투쟁으로 1.4분기에 최고의 생산실적이 기록되였다. 이 기간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수만t의 비료가 증산되여 봄철영농전투로 들끓는 농업전선에 더 많은 비료가 보내여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관철하여 하루빨리 생산을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비약의 열쇠를 과학기술중시에서 찾았다.

새로 꾸려진 무연탄가스화공정과 더불어 조직된 직장들의 기술학습실마다에서는 로동자, 기술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학습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들끓는 생산현장에서 설비들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토론이 진행되였고 작업후에는 기능공들의 경험발표와 교환, 새 지식의 보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맡은 생산공정에 정통하기 위한 탐구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설비들의 기술적특성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미치는 인자들과 최대한의 실수률보장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깊이 파악하였으며 모두가 새 공정의 미더운 주인, 기술자, 기능공으로 자라났다.

남흥로동계급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보다 높은 목표가 세워진 가운데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선행공정과 보장부문의 생산실태, 가스발생공정의 생산성 등을 운영단계에서 엄밀히 따져보고 원료조건과 자체실정에 맞게 비료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들을 내놓았다. 그 수행을 위한 생산능력확장과 새 기술도입사업이 현행생산과 동시에 벌어진 굴지의 화학공업기지는 불의 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공무부문의 로동계급은 현행생산과 능력확장공사를 위한 부속품보장량이 배로 늘어난데 맞게 많은 량의 파철을 자체로 해결하여 소재생산을 늘이였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부속품과 제관품가공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호응하여 능력확장공사가 벌어지는 현장들에서 교대를 끝마친 기대공, 수리공들이 네일내일이 따로 없이 치렬한 조립전투를 벌리였으며 생산공정의 보수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고열과 싸우며 조립전투를 다그쳤다.

불같이 흐른 날과 달속에 선행공정의 석탄하차를 위한 설비들과 선별공정들이 보강되고 10대의 성형기와 2대의 건조로와 압축기를 비롯한 설비들이 새로 설치되였으며 후민산공정이 더욱 완비되여 질좋은 비료생산원료를 뒤공정에 더 많이 보내주었다. 그들은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가스발생공정에 자체실정에 맞는 새로운 생산방식을 도입한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새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이였다. 이 과정에 발열량이 낮은 석탄까지 모조리 리용하고 봉탄생산에 되돌이공정을 설치하여 같은 조건에서도 생산량을 부쩍 높일수 있게 되였다.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화선식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누구나 생산의 주인이 되여 설비관리를 더욱 짜고듦으로써 주체비료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였다.

들끓는 현장에서 만난 한 기대공은 보람찬 투쟁의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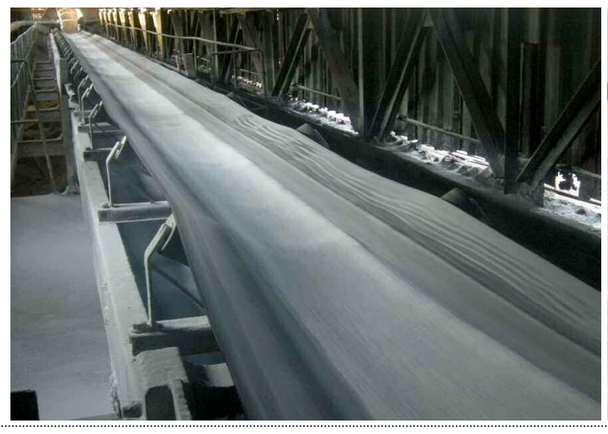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인 농업전선에 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어야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고 제재를 떠벌이는 원쑤들에게 된매를 안길수 있다고 생각하니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각을 안은 우리들이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나날에 승리의 오늘을 안아올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굴지의 화학공업기지는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높고낮은 합성탑과 반응로마다에서 증산의 열기가 가슴후덥게 뿜어져나오고 만부하의 우렁찬 동음이 각종 설비들에서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풍요한 가을을 약속하는 그 우렁찬 동음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결사관철하려는 남흥로동계급의 불같은 의지인양 내 나라, 내 조국의 하늘가로 끝없이 메아리쳐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명흥숙



## 생산을 적극 추동하는 과학기술

### 침전지에서 찾아낸 예비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창조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던 지난 1월중순 어느날이였다.

새해의 첫 전투시작부터 지난 시기에 비해 매일 1.3배이상의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며 기세좋게 내달리던 후민산직장 미분작업반원들앞에는 뜻밖의 난관이 가로놓이였다.

저탄장의 갈탄이 바닥나기 시작한것이였다. 불리한 겨울철조건에서 필요한 갈탄이 들어오려면 며칠이 걸려야 할지 누구도 알수 없었다.

량철수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원들이 모여앉아 방도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중 그들은 문득 주변에 있는 침전지에 주목을 돌리게 되였다.

—침전물의 후민산함량은 비록 작아도 부족되는 갈탄대신 리용할수도 있지 않겠는가.

창조적사색은 훌륭한 결실로 이어졌다. 이들은 기술자들과의 련계를 긴밀히 하는 과정에 침전물을 산화탑의 원료로 리용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작업반원들모두가 떨쳐나선 가운데 낮에 밤을 이어가며 침전지바닥을 파내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서로의 창조적지혜가 합쳐져 수분함량이 많은 침전물을 현존설비로도 능히 미분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도 찾아내게 되였으며 다음공정에 필요한 원료를 중단없이 보장할수 있었다.

### 줄어드는 설비보수시간

암모니아직장은 련합기업소적으로 설비들의 대수가 많은 단위들중의 하나이라고 할수 있다.

비료생산이 흐름식으로 진행되고있는 조건에서 각종 설비들의 보수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 그 가동률을 높이는것은 비료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서 관건적인 고리로 나서고있었다.

직장의 일군들이 각종 설비들의 보수시간을 극력 줄이기 위한데 모를 박고 늘 현장에 내려가 림정철동무를 비롯한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실정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누구나 설비보수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사색하면서 뛰고 또 뛰였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직장에서는 재생탑의 중부와 하부에 있는 용액분배판에 새로운 형식의 려과망을 창안도입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새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종전보다 각종 설비들의 보수시간을 훨씬 줄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용액열교환기 하나만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지난 시기 용액열교환기에 대한 보수를 진행할 때면 련합기업소적인 방조밀에 증기계들까지 동원하여 6시간이상 걸렸지만 지금은 직장자체의 힘으로 불과 2시간동안에 끝낼수 있게 되였다.

### 직선으로 뻗어간 증기관

비료생산의 핵심공정이라고 할수 있는 가스화공정을 정상운영하는데서 증기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지난 시기 련합기업소에서는 가스화공정의 운영에 필요한 증기량이 부족한것으로 하여 적지 않은 애로를 느끼고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련합기업소의 기술력량이 달라붙어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왔다. 이 나날에 찾은 방도가 바로 도로를 따라 여기저기 꺾이면서 뻗어간 증기관을 곧바로 펴는것이였다. 발전소로부터 가스화공정까지 직선으로 증기관을 늘이기만 한다면 부족되는 증기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다는 기술적담보도 마련되였다.

지난해 12월말 만단의 준비를 갖춘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빠른 시일안으로 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켰다. 시작된지 며칠 안되는 사이에 증기관공사가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이로 하여 얻은 경제적실리는 참으로 대단하였다. 관의 길이가 1 000여m나 줄어들고 그 관리에 보다 적은 품을 들이게 된 반면에 같은 조건에서도 증기량이 훨씬 늘어나 가스화공정에서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게 되였다.

본사기자

## 결사관철로 수놓아진 격전의 90일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경쟁운동을 실속있게 벌려야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대중적혁신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여기는 창조와 혁신의 숨결드높은 선탄공급직장이다.

쉬임없이 오고가는 기중기들, 파쇄, 선별공정에서 울리는 우렁찬 동음, 벨트콘베아를 타고 쉼없이 흘러가는 원료, 격조높은 경제선동의 북소리…

우리는 드높은 경쟁열의속에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는 전투현장 한가운데서 이 소식을 전한다.

교대에서는 방금 한개 화물렬차분에 해당한 석탄을 처리하였다. 석탄산이 곳곳에 생겨난 가운데 모든 공정들이 만부하를 걸고 돌아간다.

석탄을 무드기 실은 화차들을 꼬리에 단 구내기관차가 또다시 저탄장에 들어선다. 신호공과 기관사와의 째인 협동이 벌어진다. 야무진 호각소리와 힘있는 기발신호에 따라 화차들이 제각기 부림위치를 차지한다.

때를 기다린듯 6대의 천정기중기들이 경쟁적으로 화차마다에 다가든다. 여기저기서 기중기바가지들이 연방 화차우에 드리워진다. 윙—윙— 용을 쓰는 천정기중기들, 더욱 팽팽히 당겨지는 쇠바줄, 화차의 석탄이 련속 바가지에 실려 허공중에 떠올라 집채같은 저장통으로 향한다.

서로 린접한 1호와 2호기중기운전공들사이의 경쟁이 더욱 치렬하다. 1호운전공 장원남동무가 네벽이 유리로 된 조종실에서 현장을 굽어보며 능숙하게 기중기를 운전한다.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흘러내리지만 쉴념을 모른다. 이에 뒤질세라 조종간을 억세게 틀어쥔 2호운전공 량대혁동무의 일손에도 불이 인다.

앞서거니뒤서거니 운전공들의 드높은 경쟁열의속에 화차마다에 그득그득 쌓였던 석탄이 바닥으로 쏙 내려간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마침내 장원남동무가 먼저 승리의 기발을 꽂은 심정인양 엄지손가락을 펴보인다. 이번에는 한발 늦었지만 다음번 우승은 문제없다는듯 량대혁동무가 배심좋게 축하의 미소를 보낸다. 뒤이어 2호기중기가 마지막바가지를 들어올린다.

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직장장 오영일동무가 교대에 최고 19량의 화차에 실려온 석탄을 처리하였다고, 이만한 속도면 원료보장은 문제없으니 뒤공정에서 최고비료생산실적을 기록할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파쇄, 선별공정의 동음은 더욱 높아가고 잘 선별된 석탄들이 벨트콘베아를 타고 끊임없이 봉탄생산공정으로 흘러간다.

비료증산의 벅찬 숨결인양 곳곳에 전개된 속보판들에 혁신의 소식이 전해지고 교대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하였다는 현장방송원의 목소리와 함께 축하의 노래소리가 전투장을 진감한다.

본사기자 전성삼

‖ 현지보도 ‖

### 경쟁바람

#### 선탄공급직장에서

남흥의 기세가 간단치 않다. 남흥로동계급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혁명정신에 떠받들려 주체비료가 끊임없이 쏟아져내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드넓은 기업소구내를 뒤덮은 높고낮은 화학장치물들마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우렁차게 울려퍼진다. 선탄, 봉탄, 발생, 합성 등 비료생산의 모든 공정들에 만가동, 만부하가 걸렸다. 벨트콘베아를 타고 주체비료가 끊임없이 흐르고 시간을 다투며 비료산이 더 높이 쌓아지는 이 시각 우리는 이곳 로동계급의 고결한 충정과 헌신으로 수놓아진 지난 90일간의 투쟁나날을 돌이켜본다.

—1.4분기 비료생산계획 빛나게 완수,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수만t의 비료를 더 생산!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남흥로동계급이 결사관철의 날과 달을 이어오며 마련한 소중한 결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애국유산인 주체비료폭포의 장쾌한 모습을 펼치기 위해 격전의 낮과 밤을 이어온 사람들속에는 비료생산의 선행공정을 믿음직하게 지켜낸 로동계급도 있다.

모든 가스발생로들에서 만부하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던 지난 2월 중순 어느날이였다.

발생로직장앞에는 한기의 로를 시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안될 정황이 조성되였다. 보수를 진행하기 위해 달아오른 로를 식히는데만도 4~5시간, 수만㎥의 가스를 더 생산할수 있는 시간이였다. 남흥로동계급의 량심은 이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었다.

현장에 모여온 로동자들이 보수를 맡아하겠다고 저마다 앞을 다투어 나설 때였다. 어느새 물에 추긴 솜옷을 뒤집어쓴 발생2작업반의 고명혁동무가 로안으로 뛰여들었다. 숨이 꺽꺽 막히고 로가 내뿜는 수백℃에 달하는 열기로 하여 작업복에 불이 달린 속에서도 끝끝내 보수를 끝내고야 밖으로 나온 그를 보며 사람들모두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언제인가 7호가스발생로에서 갑자기 새여나오는 가스를 발견한 즉시 위험을 무릅쓰고 순식간에 바킹을 교체한 발생2작업반의 배충일동무의 모습을 지금도 누구나 잊지 못하고있다. 자기가 맡은 일은 아니지만 11호가스발생로에 이상이 생기자 총알같이 달려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조작작업반의 박정철동무의 헌신적인 투쟁도 불과 얼마전에 있은 사실이였다.

생산설비마다 만가동, 만부하!

결코 말처럼 쉬운것은 아니였다. 결사관철, 바로 이것이 투철한 신념과 불굴의 의지로 모두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져있기에 누구나 위급한 순간에 서슴없이 자기 한몸을 내대며 주체비료증산의 동음을 굳건히 지켜낼수 있은것이였다.

비료생산의 제일 어렵고 힘든 공정을 지켜선 성형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투쟁이야기는 또 얼마나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가.

3호건조로의 정상가동을 위해 아글타글 뛰고 또 뛰여다닌 건조2작업반의 신광남동무와 로보수시간을 최대로 줄이기 위해 여러 시간동안이나 자리를 뜨지 않고 용접불꽃을 날린 수리작업반의 안형삼동무.

이들만이 아니였다.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뛰여들면서 건조로들의 만가동을 보장해낸 김경주, 한태철, 림만춘, 한창식, 서철동무들도 바로 이런 결사관철의 투사, 돌격전의 기수들이였다. 이런 미더운 전투원들의 앞장에는 언제나 허경호, 렴광웅동무를 비롯한 직장의 일군들과 김정혁동무와 같은 미더운 당세포비서들이 서있었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려는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애국의 열정은 선탄공급직장, 후민산직장 등 선행공정의 다른 전투장들에서도 활화산마냥 타올랐다.

우리는 고결한 충정과 의리의 날과 달, 격전의 90일간에 꽃펴난 이곳 로동계급의 가지가지의 위훈담을 다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당정책관철에서는 불가능을 모르는 이곳 로동계급의 충정의 열도를 통하여 남흥의 억센 숨결의 원천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결사관철은 남흥의 투쟁기질, 투쟁본때. 우리는 기어이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가리라!

주체공업의 위력떨치며 전진또 전진하고있는 굴지의 화학공업기지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불같이 흐르고있다.

본사기자 류성국

# 우리 당의 전문화체육소조활동방침의 생활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학교들에서 일정한 체육종목을 전문화할데 대한 강령적말씀을 주신 40돐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학교들에서 일정한 체육종목을 전문화할데 대한 강령적말씀을 주신 40돐기념 중앙보고회가 18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재능있는 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자!》,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랑만이 차넘치게 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모범적인 학교교장, 체육교원, 전문화체육소조원들, 시내 학생청소년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보고회는 시작되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우리 군대와 인민, 청소년학생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가고있는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학교들에서 체육종목을 전문화할데 대한 강령적인 말씀을 주신 40돐을 기념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63(1974)년 4월 18일 학교체육을 대중화하는데서 신계군 대정고등중학교(당시)와 같이 일정한 체육종목을 전문화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며 그렇게 하면 선수후비를 많이 키워낼수 있고 나라의 체육기술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고 가르쳐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말씀은 학교체육을 더욱 강화하고 체육의 대중화를 실현하며 나라의 체육인재후비육성사업과 주체적인 체육기술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수 있게 한 강령적지침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모든 학교들에서 자기의 특성에 맞게 한두가지 체육종목을 정하고 거기에 힘을 넣도록 현명하게 이끄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신문과 출판물을 통하여 종목별전문화체육소조활동에서 모범적인 신계군 대정고등중학교의 파외체육활동경험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소조지도교원들의 강습도 조직하도록 하여 학교들에서 전문화체육소조활동이 대중적으로 힘있게 진행되도록 하시였다고 말하였다.

전문화체육소조원들의 종목별체육경기대회를 잘 조직하고 경기명칭과 우승컵, 메달, 4.15최우수선수상도 제정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문화체육소조활동을 잘하고있는 학교들과 소조지도교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선물과 명예칭호도 안겨주시고 우수한 소조원들을 희망과 소질에 따라 조선체육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에 보내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40년간 학교들의 종목별전문화체육소조활동을 통하여 나라의 체육선수후비가 수많이 자라나고 청소년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학교종목별전문화체육소조에서 자라난 수많은 선수들이 세계선수권보유자, 아시아선수권보유자의 영예를 떨치고 영웅으로,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으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종목별전문화체육소조활동에 관한 사상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종목별전문화체육소조를 잘 꾸리고 대항경기를 자주 조직하며 소조운영을 활성화하여 재능있는 선수후비를 더 많이 키워내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학교들에서는 또한 자기 학교의 특성에 맞는 한두가지 체육종목을 정해놓고 그것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모두 한가지이상의 체육기술을 소유하도록 할수 있으며 어려서부터 체육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재능있는 선수후비를 많이 키워낼수 있습니다.》

보고자는 학생청소년들과 체육교원들, 청년동맹일군들이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체육소조활동에 적극 구현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학교들에서 특성에 맞게 종목별전문화체육소조를 잘 조직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며 체육에 소질이 있고 발전성이 좋은 적성체질소유자들을 적극 찾아내고 소조활동의 질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할것이다.

소조지도교원들은 낡은 경험과 경직된 사고방식, 훈련지도방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세계적인 체육과학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전문화체육소조의 발전전망목표를 높이 세우고 종목별훈련과 경기를 과학화하며 우리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훈련방법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

청년동맹일군들은 당의 청소년체육방침의 생활력과 그 정당성이 뚜렷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할것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단위들을 적극 도와주며 소조활동에서 모범적인 체육소조지도교원들과 소조원들을 내세워주고 평가해주며 그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여야 한다.

키크기운동과 국방체육을 위주로 하는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기 위한 조직과 지도를 짜고들고 그 어느 학교에 가나 체육열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할것이다.

학교체육사업과 관련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과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틀어쥐고 모범체육학교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체육기자재보장과 체육소조활동을 비롯한 학교체육사업에서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보고자는 모든 학교체육교원들과 종목별전문화체육소조원들, 청년동맹일군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정은**선생님 발걸음따라 앞으로》노래주악으로 보고회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 신계린회석광산건설 완공, 조업식 진행

신계린회석광산건설이 완공되여 조업하였다.

린회석광산이 새로 일떠섬으로써 도의 알곡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광산조업식이 18일에 진행되였다.

박태덕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조준학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건설자들, 광산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조업식에 참가하였다.

임훈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조업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계린회석광산건설정형을 료해하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한평생 우리 인민에게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이시려고 그처럼 마음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린비료생산을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첫 대회로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신계린회석광산을 건설할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고 말하였다.

또한 과학자, 기술자들도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린정광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짧은 기간에 광산건설을 끝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광산에서는 과학적인 기업관리, 경영관리체계를 세우며 모든 설비들에 만가동, 만부하를 걸어 정광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업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광산의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버섯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고있다.
—허천군버섯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인민사랑 꽃펴나는 만경대유희장

## 인민의 훌륭한 문화휴식터를 꾸려주시려

혁명의 성지 만경대에 4월의 봄이 왔다.

아름다운 일만경치가 펼쳐져 그 이름도 만경대라 불리운 유서깊은 땅에 갖가지 꽃들이 다투어 피여나고 온갖 새들의 지저귐소리가 봄노래마냥 유정하게 울려퍼진다.

하지만 자연의 풍치와 더불어 만경봉기슭에 펼쳐진 행복의 일만경치, 기쁨의 일만경치를 떠나 어찌 만경대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할수 있으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참된 삶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은 오직 조국과 인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수령에 의해서만 마련되고 꽃펴날수 있습니다.》**

화창한 봄계절을 맞아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는 만경대유희장!

만경대유희장이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진 때로부터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나날 만경대유희장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랑만을 더해주며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참답게 이바지하여왔다.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새로 건설된 만경대유희장을 몸소 찾으시고 우리 인민과 청소년학생들을 위한 또 하나의 훌륭한 문화휴식터가 마련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이 숭엄히 아로새겨져 있다.

뜻깊은 그 봄날 현대적으로 꾸려진 만경대유희장을 오래도록 돌아보시면서 유희장에서 뛰놀던 청소년학생들과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모든 시름이 다 풀리시는듯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어버이수령님!

유서깊은 만경대지구에 인민의 문화휴식터를 훌륭히 꾸리실 구상은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수령님의 심중에 자리잡고 있었다.

해방된 이듬해 봄날 대동강 푸른 물이 굼실대며 감돌아흐르고 울긋불긋 꽃바다속에 묻혀 한폭의 그림과도 같이 아름다운 만경봉에 오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만경대는 예로부터 경치가 좋은 곳이므로 앞으로 여기에 인민의 행복이 넘치는 유원지를 잘 꾸리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릉라도와 대성산, 모란봉 등 수도의 경치좋은 곳곳에 인민의 유원지를 꾸려주신 다음에도 그날의 구상을 잊지 않으시고 만경대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유희장을 꾸리도록 구체적인 지도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인민의 행복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만족을 드리시기 위해 수령님의 탄생 일흔돐을 맞으며 만경대유희장이 준공될수 있도록 유희장건설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여주시였다.

형성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유희기구의 종류와 그 배치, 유희장의 의자와 동물조각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알아보시며 만경대유희장이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는 현대적이며 인민적인 문화휴식터로 건설되도록 공사의 전과정을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실로 어버이장군님의 세심한 가르치심과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만경대유희장은 만경대 갈매지벌로부터 드넓은 송산벌에 이르는 70정보의 방대한 부지를 차지하고 2회전관성렬차와 송산정점을 넘어가는 천수백m의 유람삭도, 련못주변을 도는 공중렬차를 비롯하여 수십종의 유희기구와 오락설비는 물론 현대적인 물놀이장까지 갖추어진 하루 10만명 수용능력의 종합적인 유희장으로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

만경대유희장은 오늘 전변의 새 모습을 자랑스럽게 펼쳐보이며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어머니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전하여주고있다.

만경대유희장이 오늘과 같이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더 아름답고 더 훌륭히 변모되게 된것은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지금도 잊지 못할 하나의 화폭이 숭엄히 떠오른다.

두해전 5월 만경대유희장을 몸소 찾으시고 우리 일군들이 인민판을 바로 가지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쳐주시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과 은정이 깃들어있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를 보다 아름답게 변모시키실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유희장구내의 원림상태를 알아보시며 나무들의 주위에 조약돌을 여러가지 모양으로 곱게 박아놓으면 보기에도 좋지 않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고 어느 한 유희시설앞에 이르시여서는 유희시설들의 구획이 명백히 나타나도록 분리띠를 조성하면 보기에도 좋고 리용에도 편리할것이라고 이르시며 유희장의 관리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 개선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 인민사랑의 세계를 다시한번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우리 인민은 경치아름다운 만경봉기슭에 훌륭히 꾸려진 만경대유희장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며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다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와 자신께서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선군혁명령도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면서도 온 나라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큰절을 드리고 또 드리고있다.

화창한 이 봄날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향해 문을 활짝 연 만경대유희장에서는 지금 사람들의 기쁨넘친 웃음소리가 만경대의 푸르른 하늘가로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그 환희의 메아리와 더불어 만경대유희장은 인민을 위한 절세의 위인들의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를 전하며 영원히 솟아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리 남 호

## 진정에 넘친 고마움의 목소리

### 《그 은정에 목이 멥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온 가정이 만경대를 찾았다.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을 돌아보고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새롭게 변모된 만경대유희장에서 마음껏 뛰노는 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인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해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해놓으시였는가를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누려가고있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인민들이 리용할 유희장에까지 찾아오시여 일일이 돌아보시고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으니 인민을 위한 우리 원수님의 따사로운 사랑에 목이 메여올뿐이다.

정말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우리 원수님은 인민을 위해서는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시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실 절세의 위인이시다.

중구역 교구동 43인민반 김 희 옥

### 인민사랑의 결정체

만경대유희장으로는 남녀로소 누구나가 찾아온다. 우리 청년들도 이곳을 즐겨 찾는다.

나는 여러가지 유희기구를 리용하며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낼 때마다 우리 인민에게 베풀어지는 당과 국가의 혜택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군한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이름난 유희장들도 적지 않지만 이처럼 평범한 근로대중을 위해 세상에 자랑할만 한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지를 마련해주고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빛내주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는가.

만경봉기슭에 솟아올라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더욱 빛을 뿌리는 만경대유희장, 정녕 그것은 인민을 위한 일에는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절세위인들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의 고귀한 결정체인것이다.

만경대구역 원로리 7인민반 정 순 별

###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절승경개를 자랑하는 만경봉기슭에 펼쳐진 만경대유희장의 새 모습앞에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티 한점 없이 일매지게 뻗은 도로들과 푸른 주단이 펼쳐진것만 같은 잔디밭, 온갖 꽃들이 피여나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록지구역…

땅도 그 땅, 유희기구도 그 유희기구그대로이지만 유희장전체가 어찌나 정갈하고 아름답게 변모되였는지 새로 일떠선 유희장에 들어서는것만 같았다.

만경대유희장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면서도 이곳을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더 훌륭히 꾸리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하여 가슴이 뜨겁게 젖어오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온갖 락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건설부문의 로동계급답게 올해를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질 뜻깊은 해로 빛내이는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서성구역 석봉동 53인민반 허 철 남

## 즐거운 웃음소리 그칠줄 모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새 없다.

실지기재를 방불케 하는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가며 땅을 주름잡아 내달리는듯한 쾌감에 잠기기도 하고 깊은 바다속에서 여러가지 물고기들을 잡는 신비의 세계에 빠져들기도 하며 힘과 지혜를 겨루면서 아슬아슬한 결전을 벌리는 격술가의 세계도 체험하게 하는 만경대유희장의 전자오락관!

다채로운 오락설비들이 새롭게 들어앉은 전자오락관은 흥미진진한 세계를 직접 체험하는듯한 감흥과 흥미로 하여 청소년학생들은 물론 어른들의 발목을 붙잡고있다.

누가 더 팔힘이 센가를 직접 겨루는 팔씨름놀이며 손에 직접 총을 들고 아슬아슬한 격전을 벌리게 하는 권총사격놀이는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오락놀이들이다.

오락의 세계에 빠져들면 즐거움과 긴장감, 경탄이 쉬임없이 엇바뀌는 속에 누구나 시간가는 줄 모른다.

《인민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이곳을 찾고 또 찾으며 즐겁게 휴식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사랑과 은정에 가슴이 뜨겁게 젖어들군 합니다.》

이것이 어찌 전자오락관 관리공 최원옥동무의 심정이라고만 하랴.

하나를 주면 열, 백을 더 주고 싶어하시는 어버이의 심정으로 수도 평양의 곳곳에 현대적인 문화생활기지들을 훌륭히 꾸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싶어하는 수도시민모두의 마음이리라.

과학탐구의 길에서 쌓인 정신적피로도, 창조와 혁신의 불꽃이 이는 건설장에서 쌓인 피로도 즐겁고 유쾌한 웃음으로 순간에 날려보내게 하는 이 집에서 수도시민들은 새로운 결의를 다진다.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더 굳게 지켜갈 맹세를, 그 길에서 보다 큰 실적을 이룩할 결의를.

즐거운 웃음이 그칠줄 모르는 집!

실로 만경대유희장에서 첫손가락에 꼽힐만큼 만사람의 인기를 모으는 전자오락관이다.

본사기자

## * 유쾌한 생활이 안겨주는 기쁨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봄을 맞이한 만경대유희장은 그야말로 한폭의 그림을 련상케 한다.

시원하게 뻗어간 아스팔트도로며 번듯하게 포장된 걸음길들, 아름답게 피여난 갖가지 꽃들이며 키높게 자란 나무들사이로 푸른 주단마냥 널직하게 펼쳐진 잔디밭들, 주변환경에 맞게 무게있게 들어앉은 유희시설들은 서로 한데 어울려 이곳의 경치를 한껏 돋구어주고있다.

하늘에서는 주변경치를 한눈에 부감할수 있게 유람삭도가 떠다니고 대관람차가 돌며 땅우에서는 우주비행선이 금시 하늘을 썰며 날아오를듯 한 아슬아슬함과 쾌감을 안겨준다.

문어회전반 등 여러가지 유희시설들이 꽉 들어찬 만경대유희장은 매일 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있다.

만경대유희장의 유희시설들 가운데서 제일 인기를 끄는것은 2회전관성렬차이다.

궤도를 따라 빠른 속도로 내달리며 높은 곳에서 내리꽂히는 관성의 힘으로 렬차가 공중에서 련속 두바퀴를 빙그르르 돌 때면 그것을 탄 사람이나 관성렬차를 타고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는 그들을 보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와—와 함성을 지른다.

2회전관성렬차를 처음으로 타본 경공업성체육단의 어느 한 마라손선수는 소감에 대해 묻는 우리들에게 그 경쾌한 질주에 대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좀더 일찌기 이 유희시설을 타보았더라면 차라리 비행사가 되였을걸 하는 후회감이 앞선다고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터놓았다.

만경대구역 광복거리고급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이 유희시설을 여러번 타보았는데 타볼수록 정말 재미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동무들과 함께 이곳에 올 때마다 2회전관성렬차를 놓치지 않고 타보군 한다고 말하였다.

우리와 만난 만경대유희장 관리소의 일군은 2회전관성렬차를 비롯하여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는 유희시설들마다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헌신의 자욱이 뜨겁게 어리여있다고 하면서 인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의 가슴마다에는 만경대유희장의 유희시설들을 마음껏 리용하며 웃음터치는 사람들의 행복넘친 모습들이 인민위해 베풀어지는 우리 당의 숭고한 사랑으로 뜨겁게 안겨들었다.

만발하는 꽃계절과 더불어 인민의 웃음소리 높이 울리는 만경대유희장!

만경대유희장에 넘치는 인민의 웃음소리는 이렇게 웨치는듯 싶다.

사람들이여, 어서 오시라, 어머니당의 사랑 넘치는 만경대유희장으로!

글 본사기자 리 건 일
사진 본사기자 리 진 명

## 실화 요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우는것은 나라의 전망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세계마냥 황홀한 옥류아동병원 입원실에서 김영금은 뜬눈으로 모대기고있었다. 그가 탈수상태에 빠진 아들애를 안고 병원으로 온것은 며칠전이다.

소생 및 집중치료과에서 아들애의 병상태를 확증하였을 때 영금은 눈앞이 캄캄하였다.

《선생님, 우리 애가 소생할수 있습니까?》

박대성과장에게로 향했던 그의 눈길이 책상에 놓인 병력서로 옮겨졌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져있었다.

《나이 16/365살》

자기 아들애가 태여난지 불과 16일밖에 안된 사실에 영금은 소스라쳤다. 그야말로 불면 날고 쥐면 꺼질것만 같은 여린 생명이다. 다 자란 나무는 억센 광풍도 넘어뜨리지 못하지만 금방 돋아난 애어린 싹은 한줄기 바람에도 쉽게 사그라든다는 생각에 영금은 찬물을 들쓴것처럼 오싹해났다.

이때였다. 박대성과장의 힘있는 목소리가 울렸다.

《꼭 소생할겁니다.》

그의 대답이 영금에게 한가닥의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그것도 한순간이였다. 생사기로에서 헤여나오지 못하는 아들애의 모습은 영금을 무서운 불안에 휩싸이게 하였다.

소생전투가 계속되던 어느날 영금은 담당의사 전경일에게 지난 시기 병원에서 자기 아들애처럼 병이 심한 갓난아기를 치료해본적이 있는가 하는 말을 비쳐보았었다.

담당의사는 좀 망설이는 표정으로 《사실 처음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더니 《하지만 걱정마십시오.》라고 하며 미소를 짓는것이였다.

(분명 날 안심시키는 말이였어.)

마음이 무거워진 영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잠에 든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깨울세라 발끝걸음으로 조심조심 호실을 나섰다. 긴 복도의 한쪽끝에 협의실이 있다. 밝은 불빛이 흘러나오는 그곳으로 다가가는데 당직간호원이 그를 불렀다.

《왜 쉬지 않으세요?》

처녀간호원은 엄격한 병원규률을 암시하려는듯 곱살한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근심어린 영금의 눈동자와 마주치자 그의 심정을 헤아린 모양인지 기술부원장선생님이랑 과의료일군들이 한창 협의를 하고있으니 마음놓으라고 속살거렸다.

간호원의 말은 영금을 그자리에 더욱 못박히게 하였다. 그의 아기의 생사를 놓고 병원에서는 긴급협의회가 수시로 진행되고 치료전투가 계속되고있었다. 그럴수록 영금은 그들이 정말 아기를 살려낼수 있을가 하는 기대와 불안으로 가슴이 타들었다.

입원실로 되돌아온 영금은 자기의 애어린 아기에게 가득 실려있는 아름답고 소중한 꿈을 되새겨보았다.

김영금과 그의 남편 리성국은 둘 다 전투비행사들이다. 그들은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키며 서로 알게 되였고 아름다운 사랑을 맺었다.

《영금동무, 우리 부대로 오오.》

어느날 리성국이 불쑥 한 말이다.

《동무가 오세요. 우리 부대엔 부부비행사들이 많아요.》

김영금은 정든 부대를 떠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떼를 썼다. 그러자 성국은 펄쩍 뛰였다.

《세상에 남자가 시집가는 법도 있소? 그것도 당당한 비행사가.》

서로 다른 비행부대에서 복무하는 처녀비행사와 총각비행사간의 싱갱이는 해당 부대지휘관들에게 알려졌는데 남자쪽 부대지휘관들이 아량있게 양보하여 결국 리성국이 김영금의 부대로 《시집》을 왔다.

원래 리성국의 가정은 흔치 않은 비행사가정이다. 그의 아버지도 비행사였고 형도 비행사이다. 조국의 푸른 하늘과 굳은 인연을 맺고있는 비행사가문에 비행사며느리까지 맞은것은 비단우에 꽃이라고 할 정도로 경사로운 일이였다.

결혼후 영금에게 태기까지 있자 비행사집안은 더 흥성이였다.

《제순 꼭 아들을 낳아야 하오. 끌끌한 비행사감을 말이요.》

시형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당부하였다. 시형네는 첫 자식으로 딸을 보았다.

《딸이라도 당신처럼 비행사로 키우지.》

말은 이렇게 하나 남편도 은근히 아들을 바라는 눈치였다.

동생네마저 첫아들을 보지 못하면 자기네부부가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비행사가문의 대를 튼튼히 잇고야말겠다는 시형의 이야기를 영금은 웃음속에 새겨들었다.

온 가족의 소원을 안고 그의 아들애가 태여났다.

그로부터 얼마후 리성국, 김영금부부비행사는 꿈같은 영광을 받아안았다. 지난 3월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그들이 복무하고있는 비행부대를 찾아오시여 부대의 부부비행사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신것이였다. 산후휴가를 받고있던 김영금도 영광의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

남편은 주도기가 되고 안해는 대렬기가 되여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켜가는 부부비행사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사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고 조국수호의 항로를 함께 날고있는 이들의 마음은 정말 소중하다고, 이들이야말로 세상에 자랑할만 한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날의 영광과 행복은 부대의 제일 막내부부비행사라고 할수 있는 리성국, 김영금부부가 독차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들가정에 첫 아기가 태여난 사실을 아시고 은혜로운 사랑을 베풀어주신것이였다.

작은 한몸에 크나큰 기대와 축복을 지닌 그 소중한 아기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하니 영금은 가슴이 무너져내리였다.

이때였다. 새벽빛이 희붐히 비쳐드는 입원실로 담당간호원 량정심이 들어섰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온 그는 영금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순간 영금은 화들짝 놀랐다.

《정말이예요?》

그가 다우쳐묻자 량정심은 물기어린 두눈을 슴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량정심을 따라가니 한결 밝아진 얼굴로 쌔근쌔근 잠에 든 아기의 요람을 의사, 간호원들이 빙 둘러싸고있었다. 눈이 충혈되고 피로한 모습이지만 그들은 밝게 웃고있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젠 쌩한 비행사감이 될수 있도록 완쾌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한 젊은 의사가 하는 말이였다.

김영금은 목이 메여올랐다. 의료일군들의 마음속부담을 더해줄것만 같아 비행사가정의 구체적인 내막까지는 여태 터놓지 않은 그였다. 하지만 의료일군들은 그 모든것을 다 헤아리고 있은것이였다. 비행사가정과 부부비행사의 소원도, 먼 후날 아기의 마음속에 깃들게 될 아름다운 꿈까지도.

의료일군들의 높은 의술과 지극한 정성으로 아기는 속속 회복되여갔다. 령상태로 떨어졌던 생명지표들이 제자리를 되찾고 생활반응도 몰라보게 좋아졌다. 아기가 조그마한 두주먹을 내여뻗치며 힘껏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보면서 영금은 미소속에 눈물지었다.

아들애의 건강이 좋아지자 김영금의 마음은 부대로 날아갔다. 그는 퇴원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대번에 일축당했다. 박대성과장이 《안됩니다.》라고 무뚝뚝하게 잘라맸던것이다. 아이들을 대할 때에는 꼭 인정많은 큰아버지같던 과장선생이 이런 때엔 인정사정없는 일군으로 변해버렸다.

퇴원생각으로 몸이 달수록 김영금은 아기를 달래고 잠을 재우며 약을 먹이는것과 같은 자질구레한 일들을 자기가 하려고 애썼다. 집중치료때에는 간호원들이 아기를 전적으로 맡아안고 부담이 컸던것이다. 하지만 영금은 어머니로서 응당 해야 할 그 일감들을 넘겨받을수가 없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우리 의료일군들이 맡고있습니다. 요 꼬마도 환자가 아닌가요.》라고 하며 담당간호원은 아기의 통통한 두볼을 사랑스레 어루만졌다.

같은 호실에 있는 녀인들은 영금에게 《우리도 몇번 이야기하다 기권하고 말았어요. 간호원들의 말이 병원에선 바로 자기들이 애기환자들의 엄마라나요.》라고 한목소리처럼 말하였다.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것밖에 더 할수 없었던 영금은 황홀하게 꾸려진 옥류아동병원의 곳곳을 돌아보았다. 아이들의 동심에 맞는 병원환경이며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벽그림들, 재미나는 놀이터들…

돌아볼수록 우리 후대들을 위해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위하여, 고마운 내 나라를 위하여 조국의 푸른 하늘을 더욱 억세게 지켜가리라는 결의가 불타올랐다.

김영금은 과장선생에게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아들애의 병도 다 나았는데 왜 퇴원을 승인안하는가고 하는 그에게 박대성은 치료일지를 꺼내놓았다.

《3월 11일—4 kg
3월 13일—4.06 kg
…
3월 20일—4.39 kg》

날자별로 기록한 아기의 몸무게표였다.

《아기의 몸무게가 아직 정상수치에 도달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퇴원할수 없습니다.》

영금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병원이야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닌가. 그런데 몸무게까지…)

바로 그 시각 병원의 아래층에서는 크나큰 감격과 환희가 파도쳤다. 보통날과 다름없이 문을 연 옥류아동병원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문득 찾아오실줄 그 누가 알았으랴. 여느때처럼 치료사업을 하고있던 의료일군들, 병을 보이러 왔던 평범한 아이들과 부모들은 병원의 현관문을 스스럼없이 열고 들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품에 밀물처럼 안겨들었다.

환호의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병원안은 뜻밖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야기로 차넘쳤다.

김영금이 있는 입원실도 마찬가지였다. 누구나 한결같이 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였습니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병을 모르고 마음껏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옥류아동병원을 일떠세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병원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즉석에서 풀어주시였습니다.》

의사, 간호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금은 가슴이 뜨거웠다. 지금껏 받아안은 놀라움과 의문의 해답이 단꺼번에 떠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그 불멸의 사랑이 옥류아동병원의 기본생명소로, 귀중한 불사약으로 되고있기에 우리의 의료일군들은 친어머니마저 우려하는 아기의 병상태를 놓고도 신심을 잃지 않는것이였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의료활동의 자로 삼고있기에 그들은 어머니의 진정을 초월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는것이였다.

지난 3월 31일, 김영금은 건강한 아기와 함께 퇴원하였다.

영금은 굳이 아기를 자기가 안고 걸었다. 아동그림전시회를 방불케 하는 병원복도와 층계들을 지나면서 영금은 아기에게 속삭이였다.

《이 벽엔 소년장수그림이 있고 또 이 벽엔 날개달린 룡마가 있어. 그리고 세계명작동화에 나오는 그림들도 많단다. 아가야, 아느냐. 네가 안겨 자라는 요람이 얼마나 따뜻한것인지.》

그의 후더운 눈물방울이 아기의 얼굴에 흘러내렸다.

현관문을 나선 김영금은 병원앞마당에 세운 《옥류아동병원》이라는 글발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건강을 회복한 아이들이 그앞을 지나 넓은 길을 향하여 씩씩하게 걸어간다. 우리 조국이 후대들을 보살피는 또 하나의 은혜로운 손길인 옥류아동병원이 옥같은 몸들에 흠 하나라도 있을세라 알뜰살뜰히 닦고닦아 아름답게 빛내여준 귀한 아이들이다.

《옥류!》하고 영금은 불러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동병원에 깊은 뜻을 담아 달아주신 그 이름처럼 구슬같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물결쳐간다.

사회주의조선의 밝고 창창한 미래와 잇닿은 옥류!

김영금의 아기도 그 옥류의 한 구슬알이였다.

본사기자 허 명 숙

# 긴장격화, 북남관계파괴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지난 4월 18일까지 남조선에서는 악명높은 북침핵시험전쟁인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광란적으로 감행되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수많은 최신공격수단들과 방대한 무력을 투입하여 40여일간이나 전쟁불구름을 스산하게 피워올리였다. 이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가 파괴되고 핵전쟁발발위험이 극도로 고조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한사코 강행할 그 어떤 리유나 구실도 없었다. 우리 공화국은 올해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 의지를 안고 년초부터 실로 아량있고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 그에 따라 련속 취해진 실천적조치들은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완화에로 돌려세웠다. 그런데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말로는 북남관계개선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벌려놓았다.

이번에 감행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극히 위험천만한 북침핵선제공격연습이였다. 미제가 다른 나라들과 벌리는 합동군사연습들은 일반적으로 특정국가를 적으로 정하지 않고있으며 군사교류나 재난구조, 《반테로》 등의 명분으로 진행되고있다. 그 기간도 1주일, 길어서 1개월가량이며 그것도 2년 또는 몇년에 한번씩 벌어지고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최대, 최악의 군사적도발이다. 이 전쟁연습은 그 전과정을 통하여 대화와 평화에로의 정세흐름을 긴장격화에로 돌려세우고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코 불을 달려고 발광하는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흉악한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보였다.

호전광들이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년례적》이니, 《방어훈련》이니 하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그런 서툰 연극으로써는 공정한 내외여론을 속일수 없다. 남조선군부패거리들은 올해의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핵타격수단들이 투입되지 않을것이며 례년에 비해 연습의 규모가 줄어들것이라는 소문을 슬슬 내돌리였다. 이것이 내외의 규탄여론을 잠재우고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도발적성격을 어떻게 하나 가리우기 위한 술책이라는것이 여지없이 폭로되였다.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악명높은 북침전면전쟁각본인 《작전계획 5027》에 따라 감행되였다. 호전광들은 이번 연습기간 그 누구의 《지휘세력 및 전략적거점에 대한 정밀타격》, 《핵무기제거》, 상륙 및 기습작전, 시가전, 《점령》후 치안작전 등과 같이 극히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불장난들을 벌려놓았다. 핵타격수단들이 투입되지 않을것이라는 선전나발도 거짓이였다. 핵추진잠수함, 미싸일순양함, 이지스구축함을 비롯한 위험한 핵선제공격수단들이 대량적으로 쓸어든 가운데 감행된 이번 전쟁연습은 누구도 변명할수 없는 로골적인 북침선제공격연습이였다. 호전광들이 지난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의 수법을 써먹으면서 그 누구의 《핵심전략시설에 대한 타격》을 공공연히 떠든 사실도 그것을 립증해주고있다.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일환으로 진행된 해상종합기동훈련과 련합상륙훈련은 우리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이였다. 이 두 훈련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이번 《독수리》합동군사연습기간 가장 중시한 항목들이다. 호전광들은 이 훈련을 위해 미태평양함대 잠수함전단 소속의 핵추진잠수함 《콜럼부스》호와 미제7함대의 기함이며 상륙전지휘함인 《블루릿지》호를 남조선에 끌어들이였다. 미제의 대형침략함선들의 투입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삽시에 격화시키였다.

더우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남조선의 포항에서 사상 최대규모로 벌어진 련합상륙훈련이다. 《쌍룡》의 간판을 단 이 전쟁연습과 관련하여 호전광들은 그 목적이 그 무슨 《북급변사태》에 대비한 《핵시설장악과 평양점령》에 있다는것을 내놓고 떠들었다. 여기에는 유사시 조선반도에 제일먼저 투입되는 미해병대 제3원정려단과 해군기동대를 비롯한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방대한 병력이 참가하였다. 내외호전광들이 해병대상륙과 공중으로부터의 침투작전을 립체적으로 결합하여 감행한 《쌍룡》전쟁연습은 전형적인 공격훈련으로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날로 무분별해지는 북침야망의 뚜렷한 발로였다.

미국과 괴뢰군부깡패들은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최절정에 달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100여대의 비행기가 참가하는 력대 최대규모의 련합공중전투훈련인 《맥스 썬더》전쟁연습까지 벌림으로써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며 핵전쟁위기를 몰아오는 저들의 흉악한 몰골을 스스로 드러냈다.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악의에 찬 도전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대화와 협력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수립하려는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년초부터 각종 전쟁연습들로 맞서면서 긴장완화의 흐름을 방해하려고 미친듯이 날뛰였다. 미국은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관련한 북남사이의 협의가 진행되는 기간 조선서해의 직도상공에 《B-52》핵전략폭격기편대를 들이밀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핵타격연습을 감행하였으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총포성을 요란히 터쳐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여지없이 파괴하였다. 남조선괴뢰들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우리의 대화평화노력을 그 무슨 《화전량면전술》로 모독하면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강도를 훨씬 높이였다. 또한 《쌍룡》전쟁연습의 진행과정을 언론에 적극 공개하면서 우리에게 그 어떤 위협과 압력을 가하려고 획책하였다.

대화와 전쟁연습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남조선괴뢰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며 북침핵선제공격연습을 전례없이 무모하게 감행해나섰는데 북남사이의 신뢰가 어떻게 보장될수 있으며 대화와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질수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이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여론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해나섰을 때 벌써 북남관계의 파국은 필연이였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독수리》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의 핵전쟁위험속에 몰아넣고 북남관계를 다시금 최악의 파국상태에로 끌고간 범죄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불은 불로 다스리고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것이 우리가 찾은 력사적교훈이다.

만일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침략적흉심을 버리지 않고 끝끝내 북침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우리의 백두산혁명강군은 다지고다져온 선군의 위력과 쌓이고쌓인 적개심을 총폭발시켜 침략의 전초기지들과 본거지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고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허 영 민

# 일본반동들의 총련탄압행위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 해외동포단체들 성명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얼마전 총련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총련중앙회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비법적인 매각허가결정을 내린 일본반동들의 범죄적흉계는 해내외 전체 조선민족의 끓어오르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반동들이 반공화국, 반총련소동을 계단식으로 고조시키고 총련시설들과 동포들에 대한 강제수색과 폭행, 체포 등 야수적폭거들을 련이어 감행하여왔으며 이제는 총련중앙회관까지 강탈하려 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일본당국의 불법무도한 매각허가결정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의 옹호자인 총련의 활동거점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을 말살하려는 책동으로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흉악한 주권침해행위이며 재일조선인들의 인권을 란폭하게 유린하는것이라고 단죄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과거 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재일조선인들에게 탄압과 박해를 가하고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을 압살하기 위해 미쳐날뛰는 일본반동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본이 전패국으로서의 죄많은 과거사를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며 일본사회의 우경화, 군국화선동과 재일본조선인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을 당장 중지할것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성명은 밝혔다.

* *

우크라이나고려인통일련합회(우크라이나고통련)가 최근 성명을 발표하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책동이 극도에 이르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일본당국이 총련중앙회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비법적인 매각허가결정을 내리는 폭거를 감행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일본당국의 총련중앙회관강탈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력사적으로 볼 때 일본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국책으로 내세우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정치적탄압과 민족적박해를 감행해왔다.

재일동포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것은 일본의 국가적의무이며 회피할수 없는 법적, 도덕적책임이다.

총련은 재일조선인들의 합법적권리를 옹호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이다.

총련은 사실상 일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교대표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이므로 총련중앙회관매각문제는 조일 두 나라사이의 문제로 번져질수 있다.

일본은 이에 대해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 *

끼르기즈스딴고려인통일련합회(끼르기즈스딴고통련)가 최근 일본당국의 총련중앙회관 강탈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최근 일본당국이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에 대한 정치적탄압과 민족적박해를 끊임없이 감행해오던 끝에 총련중앙회관강탈결정을 내리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고 규탄하였다.

이번 강탈결정은 일본당국의 집요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또 하나의 생동한 실례로서 전체 조선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과거 일본이 감행한 조선인강제련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인 재일조선인들의 민족적권리를 보장하는것은 일본당국의 응당한 국가적의무이며 피할수 없는 법적, 도덕적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불법적인 매각허가결정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존엄과 생존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며 공화국의 국가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일본당국의 날강도적인 총련중앙회관강탈책동을 준렬히 규탄한다고 하면서 일본이 불법적인 매각허가결정을 당장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도발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투쟁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민권련대)가 10일 성명을 발표하여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남조선련합공중전쟁연습을 규탄하였다.

성명은 11일부터 25일까지 남조선 전지역 상공에서 력대 최대규모의 《맥스 썬더》훈련이 강행되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얼마전에는 미국과 남조선해병대가 경상북도 포항일대에서 《평양점령》을 노린 《쌍룡》련합상륙훈련을 감행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이 모든것은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조선반도긴장을 고조시키는 로골적인 행위라고 단죄하였다.

100여대의 비행기들과 1 400여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이번 공중전쟁연습에 대해 호전세력은 《북거점을 정밀폭격하고 공군수송기들이 북종심에 침투한 특수부대에 물자를 보급하는 훈련》이라고 내놓고 떠들어대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것은 이번 전쟁연습이 실전을 노린 공격연습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주장하였다.

* *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11일 미국남조선《련합군사령부》앞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단체는 《맥스 썬더》합동군사연습은 북에 대한 심각한 군사적위협으로서 북을 대결과 적대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까밝혔다.

군사연습의 성격으로 볼 때 북에 대해 매우 도발적이고 공격적이라고 비난하였다.

앞에서는 대화를 운운하고 뒤에서는 대결과 군사적위기를 고조시키는 태도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미국은 《맥스 썬더》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단하고 조선반도에서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것이라고 단체는 주장하였다.

이날 단체는 경기도 포천의 미군훈련장앞에서 벌린 시위투쟁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북을 자극하고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맥스 썬더》합동군사연습을 즉시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 남조선에서 려객선침몰사고

16일 남조선에서 려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주변해상에서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천항에서 출발하여 제주도로 가던 려객선에는 학생들과 교원 등 470여명이 타고있었다 한다.

사고로 사상자들이 났고 수백명의 생사를 알수 없으며 침몰된 려객선을 끌어올리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것이라고 한다.

남조선 《CBS》방송은 구조작업이 지지부진하여 가족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있다고 하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살려내라고 울부짖었다고 전하였다.

남조선 《MBC》방송은 남조선에서 수십년전부터 이러한 대형사고가 계속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는 또 어디서 어떤 참사가 벌어질지 모를 불안한 시대에 살고있다. 자녀들을 수학려행조차 마음놓고 보내지 못하는 세상이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실종자가족들이 품었을 슬픔과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정부》당국은 깊이 새겨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4.19의 항거정신은 대중적인 항쟁을 부른다

남조선에서 대중적인 4.19인민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54년이 되였다. 외세의 식민지지배와 파쑈독재《정권》의 암흑통치를 끝장내기 위해 과감히 들고일어나 용감히 싸운 봉기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은 오늘도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남아있다.

4.19인민봉기는 외세와 그 주구들의 식민지파쑈통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울분의 폭발이였다. 미국을 등에 업고 악명높은 경찰파쑈통치로 권력을 유지하여오던 리승만역도는 1960년 범죄적인 3.15부정선거를 강행하는것으로 장기집권야망을 드러냈다. 격분한 남조선의 각계층인민들은 반《정부》투쟁에 떨쳐나섰다. 남조선전역을 휩쓰는 대중적인 항거의 불길앞에 당황망조한 리승만파쑈도당은 급기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야수적인 탄압을 가하였다. 그러나 항쟁용사들은 조금도 물러섬이 없이 《리승만은 물러가라!》, 《경찰〈정권〉 타도하라!》, 《미국은 간섭말라!》 등의 구호를 내걸고 결사항전을 벌려 마침내 독재의 아성을 무너뜨리고야말았다. 리승만독재《정권》의 타도는 남조선인민들이 반미반파쑈,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거둔 커다란 승리였고 미제의 식민지지배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은 력사적장거였다. 봉기를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외세의 식민지지배와 매국노들의 파쑈독재통치를 용납치 않을 견결한 의지를 과시하였으며 죽음도 두려움없이 완강하게 투쟁한다면 제아무리 포악한 독재세력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4.19인민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봉기자들의 념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지배전략과 그에 적극 추종해온 괴뢰통치배들의 매국반역정책에 기인된다.

미국은 남조선의 친미주구들을 내세워 파쑈독재통치를 실시하면서 사회의 자주적, 민주주의적발전을 가로막고 조국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하였다. 4.19인민봉기에 의해 리승만역도가 쫓겨나자 군사쿠데타로 군부깡패를 권력의 자리에 올려앉히고 악명높은 파쑈독재로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념원을 무참히 짓밟은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로골적인 간섭과 배후조종에 의해 남조선에서 《정권》은 여러차례 교체되였지만 외세의존과 파쑈독재, 반통일의 범죄적력사는 끊임없이 계속되였다.

남조선에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면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4.19인민봉기자들의 항거정신을 안고 반미자주화투쟁에 용약 떨쳐나서야 한다.

반미자주화투쟁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강점과 지배를 끝장내고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미국은 끊임없는 핵전쟁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는 악의 원흉이며 남조선당국을 사촉하여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려고 미쳐날뛰는 우리 민족의 원쑤이다. 최근에도 미국은 우리의 적극적인 대화평화의지에 도전하여 반공화국핵소동과 《인권》모략책동,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였다. 또한 우리의 자위적인 군사훈련을 터무니없이 걸고들며 국제적인 반공화국제재소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자주권이 없으면 살아도 죽은 목숨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지배를 단호히 배격하며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대중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남조선에서 파쑈독재통치를 짓부시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현 괴뢰당국은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념원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독재정치와 인민들을 기만우롱하는 반역정책으로 근로대중의 생존권마저 말살하고 남조선을 최악의 인권불모지로 전락시키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피비린 《유신》독재의 정보정치, 공포정치가 되살아나고있으며 반《정부》적경향을 가진 합법적인 정당, 단체, 언론기관들이 가차없이 탄압당하는 전례없는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독점기업들과 추악한 유착관계에 있는 현 보수당국은 민영화정책의 강행 등으로 대재벌들의 배를 불리워주고 그에 항거하는 로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있다. 괴뢰당국의 반인민적악정으로 살길이 막힌 수많은 사람들이 위정자들에게 저주와 규탄을 퍼부으며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폭압은 항거를 낳기마련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를 열고 현 괴뢰당국을 민생파탄, 민주파괴의 주범으로 락인하면서 4.19인민봉기기념일을 맞으며 대규모적인 《정권》퇴진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은 민중의 생존권과 민족의 운명이 엄중한 상태에 놓였다고 폭로하면서 《4.19운동이 다시 시작될 시점이 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이 박근혜《정권》의 파쑈독재통치를 용납치 않고있으며 견결한 항거로 그것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의지를 품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책동은 북남관계마저 다시금 파국에로 몰아가고있다. 괴뢰패당은 비방중상의 중지에 관한 북남합의까지 뒤집어엎으면서 반공화국핵소동과 《인권》모략으로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들고있으며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을 가상한 대규모적인 전쟁불장난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또한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드레즈덴선언》과 같은 대결계책을 내놓고 동족을 우롱하면서 반민족적인 《체제통일》책동에 기승을 부리고있다. 이로 하여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극도의 대결상태가 조성되고있다.

남조선의 정치정세는 반독재민주화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던 50여년전의 4.19인민봉기전야를 방불케 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제2의 4.19인민봉기로 독재《정권》의 반역통치를 끝장내고 자주, 민주,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갈 의지에 넘쳐있는것은 당연하다.

인민의 버림을 받은 반역통치배들은 비참한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것이 4.19인민봉기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자주와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념원을 한사코 짓밟으며 외세를 등에 업고 반역의 길로 계속 질주한다면 《유신》독재자의 가련한 운명을 결코 면치 못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4.19인민봉기자들의 영용한 투쟁정신을 되살려 반미자주화, 반독재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대중적항쟁에 떨쳐나섬으로써 꿈에도 소원인 자주,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반드시 안아오고야말것이다.

은 정 철

#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활쏘기결승경기 진행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활쏘기결승경기가 18일 서산축구경기장에서 있었다.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2조와 압록강국방체육단, 수양산체육단, 송악산체육단의 선수들이 참가한 경기는 남, 녀 단체경기와 혼성단체경기, 남, 녀 개인경기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경기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은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평시에 다져온 높은 정신력과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날로 발전하는 활쏘기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남, 녀 단체경기에서는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2조 선수들이 1등을 쟁취하였다.

또한 압록강국방체육단과 수양산체육단이 각각 2등과 3등을 차지하였다.

혼성단체경기에서는 송악산체육단이 1등을, 압록강국방체육단과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2조가 각각 2, 3등을 하였다.

남자개인경기에서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2조 김봉훈선수가 1등을, 수양산체육단의 장금철선수와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2조 리효성선수가 각각 2, 3등을, 녀자개인경기에서는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2조 리은옥선수가 1등을, 송악산체육단의 김혜경선수와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2조 문설경선수가 각각 2, 3등을 차지하였다.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와 선수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 이란군대절에 즈음하여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무관 연회 마련

이란군대절에 즈음하여 하싼 레자 허쎄이니 주조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무관이 18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오금철 조선인민군 상장을 비롯한 장령, 군관들,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 무관들이 초대되였다.

만쑤르 차보쉬 이란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였으며 존경하는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각하와 하싼 루하니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였다.

##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이 떠나갔다

로씨야 김정숙명칭녀성동맹대표단, 로씨야 김정일동지로작연구보급촉진협회대표단, 로씨야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대표단, 몽골 주체사상-선군사상연구협회대표단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겸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이 18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이에 앞서 벨라루씨 2.16명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대표단,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련락회대표단,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대표단과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주체사상연구 베네수엘라전국협회 위원장,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국장이 떠나갔다.

##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 만경대방문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추녀낮은 력사의 집에 깃들어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중국예술단(동방가무단, 산동성교예단) 단장 송관림은 만경대에 와보고싶던 소원이 성취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인생에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것은 12살때 본 기록영화였다. 그 영화에서 조선을 방문한 주은래총리를 접견해주시는 김일성주석의 영상을 처음으로 뵙게 되였으며 그이께서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만경대를 동경하며 찾아오고싶었던 소원을 오늘에야 풀었다.

이곳을 방문하면서 소박한 가정에서 탄생하신 김일성주석의 혁명생애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그이는 중국인민이 경모하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주석의 일가분들도 모두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다.

주석께서 계시였기에 번영하는 오늘의 조선이 있는것이다.

김일성주석과 만경대, 조선은 떼여놓을래야 떼여놓을수 없는 하나이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로씨야내무성 내무군아까데미야협주단 단장 윅또르 옐리쎄예브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어려운 조건에서 모든 난관을 이겨내시며 어린시절을 보내시였다.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만경대고향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칠새없이 찾아오고있다.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진정한 인민의 수령이심을 잘 알수 있다.

핀란드취주악단 단장 키비칸가쓰 마티 쥬하니는 만경대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특히 꽃들이 만발한 봄철에 더욱 아름답다, 우리는 위대한 주석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를 방문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축전참가자들은 국가선물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릉라곱등어관, 문수물놀이장 등을 참관하였다.

## 해외동포대표단들이 떠나갔다

차상보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김칠성 제1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이 18일 평양을 떠나갔다.

평양역과 비행장에서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이 전송하였다. 이에 앞서 김택룡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단동조선족기업가협회대표단이 갔다.

## 이번주말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20일(일요일) 9시부터 김일성경기장에서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1차련맹전 남자경기가 진행된다. 경기는 기관차팀과 압록강팀, 평양팀과 선봉팀사이에 벌어진다. 기관차체육단에서는 평양체육단과 기관차체육단 선수들이 참가하는 예술체조경기가 있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반도정세를 주기적으로 격화시키는 도발자

##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은 통할수 없다

미당국자들은 입만 벌리면 마치도 저들이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떠들어대고있다. 그들은 있지도 않는 우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운운하며 그를 저지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국제기구까지 도용하는가 하면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무력을 들이밀고 군사연습소동을 일으키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정정당당한 우리의 자위적인 로케트발사훈련을 《도발》로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우리를 《규탄》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행위가 아닐수 없다. 바로 이런것을 놓고 도적이 몽둥이를 들고 길우에 올라선다고 말한다.

지금 미국은 고의적으로 사태를 외곡하고있다. 하지만 미국이 아무리 허튼 나발을 불어대며 소동을 일으켜도 평화의 파괴자, 도발자로서의 정체를 절대로 감출수 없다.

력사적으로 볼 때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터무니없는 구실을 붙여 조선반도의 정세를 의도적으로, 주기적으로 긴장시키고 격화시켜온 장본인, 도발자이다.

때없이 무장간첩선과 정찰기들을 우리 나라 령해와 령공깊이 들이밀어 준전시상태를 빚어낸것도 미국이고 전연해상과 공중, 지상에서 계획적인 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는것으로 이 땅에 전쟁도 평화도 아닌 항시적인 긴장상태를 지속시켜오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 순간부터 어느 하루도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전조선반도를 장악하고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았기때문이다.

일제패망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북침전쟁연습과 군사적도발에 미쳐날뛰다가 전쟁의 불집을 일으켰다.

전후에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위협과 도발책동은 끊임없이 계속되였다.

《푸에블로》호사건과 판문점사건, 대형간첩비행기《EC-121》사건 등 그 실례를 꼽자면 끝이 없다. 미국의 도발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조선반도정세는 언제나 전쟁접경에로 치닫군 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부쉬행정부시기에 와서 그것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부쉬행정부는 집권하기 바쁘게 우리를 고의적으로 걸고들면서 이전 행정부시기에 채택된 《조미기본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을뿐아니라 우리 나라를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켰다. 《필요한 경우 핵군사력도 동원》할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에 대한 핵공격을 기정사실화하고 국회에서 10년간 소형핵무기연구개발을 금지할데 대한 법안을 페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을 놓고 신문 《뉴욕 타임스》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하여 새로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소형핵무기개발을 금지한 법을 페기하였다고 전하였다.

현 미행정부시기에 들어와서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위협과 도발책동은 그치지 않았다. 미집권자는 취임전부터 대조선정책에서의 《변화》를 제창하였지만 그것은 한갖 빈소리에 불과한것이였다. 오히려 우리에 대한 미국의 위협과 도발책동은 더욱 강화되였다.

미국은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뻔질나게 벌려놓고 그것이 그 누구의 《붕괴》를 목적으로 한다는것을 거리낌없이 공개하였다. 《붕괴》를 가상한 《급변사태》대비훈련의 확대강화를 연습내용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미국은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인공지구위성발사도 저들의 도발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로 악용하였다.

지난해 미국은 남들이 다하는 평화적위성발사마저도 우리만은 하면 안된다는 강도적인 주장을 내세우며 군사적위협과 도발을 하였으며 북침을 노린 침략전쟁연습소동으로 우리를 심히 자극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위협과 도발의 도수는 위험단계를 넘어서고있다. 우리의 주동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에 완화기운이 감돌고있었지만 미국은 끝끝내 방대한 침략무력과 살인장비들을 끌어다놓고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그 규모와 위험성은 점차 커져 1993년이후 최대규모의 병력이 참가하여 무엄하게도 《평양점령》을 기본목표로 삼은 상륙훈련도 감행하였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위협의 한계를 벗어나 전쟁의 시작을 예고하는 극히 위험한 도발행위였다.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우리 군대는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자위적인 로케트발사훈련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무슨 큰일이나 난것처럼 국제적여론을 환기시키면서 이미 짜맞춘 각본에 따라 유엔까지 동원하여 우리를 《규탄》하는 불법무도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최근 미국은 조선반도와 주변에서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군사적도발을 계속 강화할 기도를 또다시 드러내놓았다.

미집권자가 유럽에서 일본과 남조선당국자들을 모아놓고 저들의 합동군사연습을 공공연히 정당화하면서 그것을 더 강화하겠다고 도발적으로 나왔다.

지금 우리와 미국은 적대관계, 교전관계에 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미국이 우리를 겨냥한 전쟁연습을 벌려놓고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며 고의적으로 정세를 긴장시키면서도 그것을 막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도발》로 걸고드는것은 그야말로 파렴치한짓이다.

명백히 미국이 《평양점령》을 목적으로 한 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은것은 엄중한 군사적도발이고 우리의 평화노력에 대한 도전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동적으로 여러가지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다. 미국이 자극적인 행동을 할 때에도 최대한의 인내성을 발휘하여왔다.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도 모든것을 참았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해 미국에 그 어떤 형태의 대화에도 나설수 있다는것을 표명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행동은 완전히 딴판이였다. 미국은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며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날조선전에 매여달리면서 우리의 대화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우리가 계속 대화를 제기하였지만 위협과 도발로써 대답하군 하였다.

미국의 행동은 그 누구도 납득시킬수 없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보다도 긴장격화에 관심을 가지고있다. 이로부터 미국은 우리에 대한 위협과 도발을 일삼고있다.

그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의 《위협》과 《도발》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을 막고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배를 노린 저들의 무력증강책동을 합리화하자는것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을 실현하는데서 조선반도를 특별히 중시하고있다. 조선반도를 틀어쥐고 이를 거점으로 주변나라들을 제압하고 전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자는것이 미국의 타산이다.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보장에 대해 떠드는것은 기만이다.

미국은 지난 세기에 조선전쟁을 도발하였을 때처럼 우리에 대한 도발을 일삼다가 불의의 선제공격으로 우리 공화국을 타격하고 전조선반도를 타고앉으려는 목적만을 추구하고있다.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군사적힘으로 우리를 어째볼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짓이다.

우리는 미국의 도발을 막고 평화를 수호할수 있는 강한 물리적힘, 전쟁억제력을 가지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으로 다지고다져온 전쟁억제력을 보유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있다.

미국이 경거망동하면서 우리에 대한 군사적도발을 계속 감행해온다면 그것을 저지시키기 위한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미국은 이것을 명심하고 옳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

리 학 남

## 수백만의 총폭탄들이 준비되여있다

미국놈들이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으려고 별의별 허튼 나발을 다 불어대고있다.

원래 미국이 피비린내속에서 생겨난 너절한 나라이니 진주보석처럼 만방에 빛을 뿌리는 우리 조선이 곱게 보일리 만무한것이다. 그래서 령롱한 그 빛을 막아보려고 없는것도 있다고 하고 있는것도 없다고 꾸며내면서 먹칠을 해보려 하고있다. 특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상대로 저들의 썩어빠진 사상문화를 들이밀려 하고있다.

1957년 당시 미국 무장관이라는 놈이 《미국의 기성정책은 사회주의나라들의 3세대, 4세대들을 녹여내는것이다.》라고 지껄였는데 미국놈들은 반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도 그 론리대로 책동하고있다. 미국놈들이 아무리 날뛴댔자 그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천년이 흐르고 만년이 흘러보라. 미국놈들이 대를 이어가며 반동사상문화를 들이밀기 위해 발악해도 사회주의조선의 새 세대들의 혁명정신을 말살하지 못할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공으로 되고있는 나라이다.

후대들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에 떠받들려 가장 어려웠던 나날에도 《왕차》라고 불리우는 콩우유차들이 락아소와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들을 찾아 수도의 거리들을 끊임없이 달렸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노래가 오늘도 계속 울려퍼지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현실이다.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진행한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에서 학생소년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고 또 부르던 만세의 환호소리는 우리 청소년들의 사상정신상태가 얼마나 순결무구하고 혁명적인가를 만천하에 보여주고있다.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상태는 어릴 때부터 술과 마약에 쩌들고 범죄적인 총기류문화에 오염될대로 되여 선생님들과 동료학생들도 망탕 쏘아죽이며 쾌락을 느끼는 미국의 청소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들이 지녔던 백두의 넋을 그대로 이어받고 주체혁명위업의 길을 따라 굳세게 나아갈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둥감으로 억세게 준비해나가고있다.

만일 미국놈들이 우리 나라에 함부로 불질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용약 떨쳐일어나 만장약된 총폭탄정신이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줄것이다.

대동강구역 릉라고급중학교 청년지도원 김 수 향

## 사상의 미싸일들을 더 많이 쏘겠다

침략자, 지배주의세력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미제국주의자들만큼 교활하고 비렬하며 악랄한 침략자, 지배주의세력은 일찌기 없었다. 지금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한쪽에서는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고 다른쪽에서는 너절한 반공화국모략선전소동을 벌려놓고있다. 그런데 그 모략선전이라는것이 온통 사기와 협잡으로 일관된것이다.

우리 군대가 자위를 위해 정정당당하게 진행한 군사훈련에 《위협》과 《도발》이라는 험턱을 함부로 씌우는가 하면 우리 인민이 자기 주권을 반석같이 다지기 위해 한사람같이 참가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놓고서는 《의심이 간다.》느니 뭐니 하며 악랄하게 비방중상하고있다. 또 조국을 반역한 변절자들을 올려줘주면서 우리의 《인권문제》를 걸고들고있다. 지어 입에 담기조차 역겨운 악담들을 서슴없이 내뱉으면서 우리 공화국을 헐뜯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미제와 그 하수인들은 우리의 국경으로 썩어빠진 반동사상문화를 들이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정보요원들은 물론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을 들여보내여 우리 공화국을 비방중상하고 미신을 설교하는 불순선전물들을 류포시켜보려고 교활하게 획책하고있다.

미제가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 존엄을 훼방하고 우리 내부를 어째보기 위해 너무도 무분별하게 날뛰고있는 이 현실앞에서 우리는 치솟는 분노와 증오심을 금치 못하게 된다. 이런 불구대천의 원쑤와는 끝까지 결판을 보아야 한다.

미제의 모략선전소동과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는 방어적으로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맞서나가야 한다.

우리는 도내 인민들의 정신력을 총발동시켜 사회주의수호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전면적인 사상공세를 벌려나가겠다.

기사 한건한건이 미제원쑤들에게는 철추를 내리고 도내 인민들에게는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는 사상의 위력한 미싸일들로 되도록 하겠다.

우리가 사상의 미싸일들을 목표에 정확히 명중하면서 집중적으로, 련속적으로 쏜다면 미제의 악랄한 반공화국모략선전소동도, 반동적인 사상문화침투책동도 실패를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평남일보사 부장 김 광 철

## 침략자들에게 불벼락찜질이 제일이다

미국놈들이 졸개들까지 내몰아 우리에 대한 험담질을 계속 늘어놓고있는데 정말 격분을 누를수가 없다.

그 너절한 주둥이들에 한탄창씩 퍼부어도 씨원치 않을것 같다.

그래 제놈들은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우리 공화국을 집어삼키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을 뻐젓이 감행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 혁명무력이 그에 대처하여 자위적인 로케트발사훈련을 진행한것은 그 무슨 《결의위반》,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떠벌이는것이 과연 리치에 맞는 말인가.

이것은 결국 제놈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할 때에 우리가 단호히 반격도 하지 말라는 소리와 다를바 없는것이다.

입은 삐뚤어져도 주라는 바로 불라는 말이 있다.

세상 못된짓은 도맡아놓고 저지르면서도 잘못은 남에게 뒤집어씌우고 모해하며 헐뜯는 미국놈들이야말로 가장 너절한 불망종들이고 날강도들이다.

이런 놈들에게는 절대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 더이상 씨부렁거리지 못하게 호된 불벼락찜질을 안겨야 한다.

지금 미국놈들이 우리 혁명무력과 정면으로 맞서기 무서우니까 퇴폐적인 사상문화로 어째보려고 날뛰고있다.

이라크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의 군인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녹여내고 그 나라들을 손쉽게 군사적으로 가로타고앉은 그 모략적인 심리전수법이 우리에게도 통하리라고 타산하고있다.

어처구니없는 놈들이다.

미국놈들에게 백두산혁명강군이 어떤 군대인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군대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무적의 사상강군, 가장 강력한 혁명적무장력이다.

미국놈들이 아무리 씨부렁거려도 우리 군인들의 머리속에 꽉 들어찬 혁명사상을 절대로 흐려놓을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한 우리 군대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가를 미국놈들의 대갈통속에 사무치도록 박아주어야 한다.

우리는 미국놈들이 조금이라도 움쩍한다면 제놈들이 한짓에 대해 후회도 할수 없게 파리잡듯 깨끗하게 박멸해버리고말것이다.

조선인민군 군관 라 경 성

##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동남아시아에 위치하고있는 인도네시아는 태평양과 인디아양사이에 있는 1만 8천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수도 쟈까르따가 있는 쟈와섬을 비롯하여 깔리만딴섬, 쑤마뗴라섬, 쑬라웨씨섬 등의 큰 섬들과 수많은 작은 섬들이 광대한 해역에 널려져있다.

세계에서 화산과 지진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있는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가지고있으며 동식물종과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열대의 보물고》라고 불리우고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 력사는 식민주의자들을 비롯한 외래침략세력의 끊임없는 침략과 착취를 반대하는 장구하고 시련에 찬 투쟁과정으로 일관되여있다.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주권을 쟁취한 인도네시아인민들은 새 생활창조의 길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다민족국가이다. 쟈와족 등 수많은 종족과 민족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에서는 매 섬들과 지역별에 따라 풍속도 문화도 언어도 종교도 각양각색이다.

이런 사회문화적조건에 맞게 인도네시아에서는 《다양성을 가진 통일국가》의 구호밑에 인민들의 통일과 단결, 사회적안정을 이룩하며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령토의 많은 섬들이 넓은 바다에 흩어져있는 조건에서 해상운수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있으며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원유와 천연가스채취 등을 발전시키고있다.

지난해 하루원유생산량은 84만bbl에 달하였다. 올해에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루원유생산량을 지난해의 84만bbl로부터 87만bbl로 늘이기로 하였다.

경제와 함께 과학기술과 교육, 보건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균형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하부구조를 발전시키는데 투자를 늘이고있으며 에네르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해에 첫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인도네시아는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면서 지역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1964년 4월 16일 인도네시아는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이때부터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보다 활기있게 발전되여왔다.

정치적안정과 경제적발전을 이룩하며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인도네시아인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은 앞으로 보다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철 혁

##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할것을 호소

라오스주석 쭘말리 싸이냐쏜이 11일 라오스새해에 즈음하여 한 연설에서 전체 인민이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난해 국가보위와 사회안전보장사업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모든 주민들이 애국주의정신을 발양하여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한데 대해 평가하였다.

그는 모두가 새해를 단결의 해로 빛내이고 주민들의 생활향상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고용병들이 활동하고있다고 폭로

《로씨야의 소리》방송이 13일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고용병들이 활동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방송은 얼마전 이 나라의 도네쯔크비행장에 미국고용병들이 또다시 도착하였다고 하면서 현재 그곳에서 100명의 고용병들이 활동하고있으며 그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것이라고 전하였다. 고용병부대들은 미국무성과 미국방성의 주문의 90%를 담당수행하고있는 이 나라 경호회사들인 블랙워터와 그레이스톤의 부대들이라고 한다.

방송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고용병들을 리용하는데 매달 800만US$를 소비하고있다고 하면서 이 고용병들은 해당지역의 경찰과 특수부대로 가장하고있으며 그 어떤 도덕이나 인간성은 전혀 없다고 까밝혔다.

## 각종 범죄

-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에서 11일 마약밀수행위를 일삼던 범죄자 4명이 체포되고 10여kg의 메탐페타민이 압수되였다.
- 미국의 캔사스시에서 13일 2차례의 총기류범죄사건이 련이어 일어났다. 이날 시교외에 있는 유태인공동체쎈터와 한 마을에서 발생한 총기류범죄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 영국 런던의 한 호텔에서는 정체불명의 범죄자가 망치로 3명의 녀성들을 마구 때려 심한 부상을 입혔다고 한다.

필리핀에서 반미시위

## 항의시위

이딸리아의 로마에서 12일 당국의 부당한 계획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 참가한 각계층 근로자들은 당국이 회사들에서 근로자들을 마구 해고할수 있게 로동규정을 바꾸려고 계획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같은 날 프랑스의 빠리에서도 당국의 부당한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참가자들은 당국의 경제개혁계획과 긴축조치를 규탄배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헛물만 켜는 중동평화중재자

9개월간에 걸쳐 진행하게 되여있는 팔레스티나—이스라엘평화협상이 이달말에 끝나게 된다.

현재까지 결과는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지난해 7월에 평화협상을 진행할데 대한 합의가 있은 후 《기대된다》고 하던 그 결과를 놓고볼 때 중동평화의 전도는 오히려 더 암담해졌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인수감자들을 석방하겠다고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있다. 그리고 가자지대와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학살만행을 끊임없이 감행하는 한편 동부꾸드스와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유태인정착촌을 확장할데 대한 새로운 계획을 내놓고 그 실현에 집요하게 날뛰고있다.

이에 대처하여 팔레스티나대통령은 자기 나라가 유엔기구 및 조약들에 가입할것이라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팔레스티나가 수십개의 국제조약들과 국제기구들에 가입하면 이스라엘의 인권유린 및 정착촌확장책동을 국제기구들에 제소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압력분위기를 조성할수 있다.

이렇게 되여 팔레스티나—이스라엘관계는 나날이 긴장해지고있다.

바빠맞은것은 중동평화중재자로 나선 미국이다.

얼마전에 미국무장관노릇을 하는 케리가 대통령인 오바마와 함께 유럽을 행각하던 도중 황황히 중동으로 날아갔다.

그가 선참으로 만난것은 이스라엘수상 네타냐후였다. 중동평화협상을 저들의 불순한 기도대로 하지 않고 헤덤비며 복잡하게만 만들어놓고있는것이 이스라엘이며 그를 설복하지 않고서는 미국이 바라는대로 중동지배전략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기때문이였다.

가관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구차스러운 흥정판을 벌려놓은것이였다.

케리는 네타냐후에게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인수감자들을 석방하는 대신 미국이 자기 나라에 잡혀있는 이스라엘간첩 죠나탄 폴라드의 석방문제를 검토할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죠나탄 폴라드는 미해군정보국에서 분석가로 일하면서 숱한 기밀자료들을 이스라엘에 넘겨준 혐의로 지난 1987년에 미국의 해당 기관에 붙잡혀 종신형을 언도받고 복역중에 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죠나탄 폴라드를 석방시켜달라고 여러차례나 미국에 애걸복걸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의 간청을 들은척도 하지 않았다. 미국정부의 속내를 몽땅 뽑아내여 이스라엘에 넘겨주고 미국을 골탕먹인 죠나탄 폴라드에 대해 분을 삭일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미국의 하수인이라고 해도 제 리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상전도 가림없이 등치고 간빼먹군 하였다.

그런데 지난 시기에 죠나탄 폴라드석방문제에 대해서는 상정도 하지 못하게 놀던 미국이 뜻밖에도 제가 먼저 그 문제를 검토할 의향을 표시하였던것이다. 미국의 속심은 그렇게 해서라도 위기에 빠진 중동평화협상을 구원하려고 노력한다는 냄새를 피우자는것이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예상밖이였다. 케리와 네타냐후가 만난지 며칠이 지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인수감자들을 절대로 석방할수 없으며 그와 관련한 조치를 취소한다고 팔레스티나에 정식 통보하였다.

결국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노력에 로골적으로 찬물을 끼얹어 상전을 아연케 하고있다.

케리는 근 9개월동안 10여차례나 고목같은 몸으로 미국에서 중동으로 왔다갔다하며 평화협상을 중재하기 위해 고달프게 뛰여다녔건만 헛물만 켜고 지금은 닭쫓던 개 울타리 쳐다보는 격이 되고말았다.

케리만 늙은것이 아니라 미국자체도 늙었다. 한때 미국의 손탁에서 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상전을 하찮게 여기고있으니 말이다.

올해에 들어와 이스라엘은 중동평화협상을 중재하고있는 미국의 노력을 가소롭게 대하며 뻣뻣하게 놀아대고있다.

지난 1월에 이스라엘국방상은 《미국무장관 죤 케리가 이스라엘—팔레스티나평화협정체결을 위해 노력하는것은 잘못된 환상과 구세주적인 열정에 따른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제시한 평화협정안은 그 내용이 적힌 종이만큼의 가치도 없다.》고 야유하였다.

지난 3월에도 세계문제들에 대한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정책에 대해서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느니, 미국이 구조적인 취약성을 드러내보이고있다느니 뭐니 하고 로골적으로 비난하였다.

네타냐후는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국제적고립에 빠져들게 될것이라고 위협하자 오히려 도전적으로 나오면서 《나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것이다.》라고 반발해나섰다.

이스라엘의 도전적인 태도에 뱰이 나지만 미국은 뾰족한 수가 나지 않아 전전긍긍하고있다. 미국의 처지가 이렇게 가련해지고있다. 그래도 속은 살아서 평화협상을 중재해보려는 미련은 버리지 못하고있다.

지금 중동평화중재자로 나서려는 신청자들은 적지 않다. 로씨야, 유럽동맹 등도 중재자역할을 해보려 하고있다. 그들에게 중재자의 자리를 빼앗긴다는것은 곧 중동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지배권이 약화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미국은 평화협상을 중재하여 《성과》를 만들어냄으로써 《평화수호자》라는 생색을 내고 이 지역에 대한 저들의 지배권을 공고히 해보려 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망상에 불과한것으로 되고있다.

이스라엘의 편역을 들면서 령토팽창주의를 비호두둔하던 미국이 도리여 이스라엘의 면박을 받고있다.

미국이 국제문제해결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기력빠진 다리나 주물며 나앉은 구경군신세가 될날은 멀지 않았다.

본사기자 리 경 수

##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물리치며

아시아의 서부 지중해연안에 고대 동서문화교류의 중심지로 소문났던 수리아가 위치하고있다.

수리아라는 나라이름은 아랍어로 《북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으로서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의 북쪽에 자리잡고있다는데로부터 유래되였다. 수도는 디마스끄이다.

B. C. 16세기에 건설된 디마스끄는 1946년 4월 17일 수리아의 독립과 함께 이 나라의 수도로 되였다. 디마스끄라는 이름은 생산의 장성을 뜻한다.

이 고대도시는 많은 력사적사건들 특히 수리아인민들의 반식민지투쟁력사의 증견자이다.

수리아에서는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는 민족경제가 건설되고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였다. 알곡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린자원이 풍부한 수리아는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밖에도 교육, 보건, 군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들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수리아의 수도 디마스끄에는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사만이 기록되여있는것이 아니라 유구한 문화전통도 살아숨쉬고있다. 아름다운 경치로 하여 10대 고대도시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는 디마스끄에는 큰 사원들을 비롯한 문화유적들이 많다.

지난날 사막의 오아시스도시로, 동서무역의 중계지로 번성하였으며 중세기에는 아랍문화의 중심지의 하나로 된 디마스끄에는 오랜 력사를 가진 규모가 큰 시장이 있다.

여기에는 《락타의 려관》이라는 유적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옛날 락타에 짐을 싣고 모래바람을 헤치면서 떼를 지어 사막을 넘어온 상인들이 여기에 락타를 매두었다고 한다.

최근년간에도 디마스끄를 비롯한 이 나라의 많은 지역에서는 오랜 문화유적유물들이 계속 발굴되고있다. 자랑스러운 력사와 문화전통을 빛내여나가는것은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수리아는 반제자주적립장이 강한 나라이다.

수리아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내정간섭책동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중동에서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수리아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고립압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수리아인민은 민족적존엄과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고있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압력과 제재, 엄중한 내정간섭과 심리모략책동속에서도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며 령토완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이스라엘이 비법적으로 강점한 골란고원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시종일관 힘있게 벌리고있다.

자주적발전과 사회적진보를 지향하는 수리아인민의 투쟁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할것이며 새 생활창조를 위한 그들의 노력은 훌륭한 결실을 맺을것이다.

본사기자 라 명 성

ㄱ-41061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